



북극강산

7

주체104(2015)
루계 제311호 월간

우린 사랑한다

랑만적으로 (♩=108)

작사, 작곡 황진영

mf G C Am A7

1. 가슴 펴고 세상을 - 굽어보 - 자 굽어보면 알 수 있으

Dsus4 D7 G C Am D7

리 우리 사는 내 나라 - 사회주의가 그 얼마나 좋은가

G *f* (후렴) C A7

를 우린 사랑한다 나서 자라난 이 땅의 모든

D7 G C D7 G

것을 - 우린 꾸려간다 더욱 번영 할 내 조국 위하 - 여

2. 남의 것이 아무리 번쩍거리도
우리들은 부럽지 않아
제 힘으로 건설한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제일 좋아
(후렴)

3. 향도성이 찬란히 앞길 밝히는
사회주의 내 나라
일심단결 하나로 뭉친 우리 힘
어느 누가 꺾으랴
(후렴)

차례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길에서

주체의 기치높이 오직 한길로 3

일화

유치원생과 대학생 7

성불사에서 찍으신 사진 8

수요와 기호에 맞게 8

《은하수》화장품 생산자들의 목표 10

우리의 힘과 지혜로 벌려나가는 최첨단 돌파전 . . . 13

민족적 특색을 더 잘 살리기 위해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철창속에서 16

수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17

운명도 미래도 다 말기고 따르는 분 19

- 승리와 영광의 70년 -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 20

-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

승리를 안아온 지략 21

네의사의 탐구, 경연, 성공 22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떴을린 주인공들 24

가정의 대학졸업생들을 꺾어보며 26

모든것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28

유럽을 다녀온 장애인 《예술인》들 29

체육을 대중화한 결실 32



고향소식

노래 《바다만풍가》에 이끌려 34

조국의 품에 안겨

후대들을 위한 일 36

편지

보고싶은 동생에게 38

바르는 마음, 쓰거울 지성 39

인상기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리워진다 40



해외동포들의 규탄의 목소리 41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10) 42

민족의 기상이 어린 소나무 45

경제무역관계의 확대를 보여준 계기 46

발해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47

참판기

반만년민족사에 이루어진 풍속을 더듬어 (2) 48

민족의 향기

삼복철의 으뜸가는 보신양 50

미국의 타산은 오산이었다 52

통일의 기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54

《인권옹호》를 떠드는 미국의 흉심 55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56

상식

동계동물보호구 18

건강에 해로운 습관 몇가지 (1) 22

우리 나라에서 발견될 가장 오랜 거주지터-《벽골계》 33

조선속담 (리기) 37

유모아

떨어진 껌 찾기 46

주체의 기치높이 오직 한길로

사연깊은 7월이다.

조국해방 [주체34(1945). 8. 15.] 70돛을 눈앞에 둔 7월에는 어제날 청소했던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 전승절(7. 27.)이 아로새겨져있다. 이날에 앞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그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생애 [주체1(1912). 4. 15.-주체83 (1994). 7. 8.]와 업적을 되새기게 하는 7월 8일이 있다.

돌이켜보면 전화의 나날 그이께서는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혁명전쟁으로 간주하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승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미제가 전쟁에 1 650억US\$를 퍼붓

고 그 주구들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들이며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감행할 때 그이께서는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군대와 인민을 자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었다. 그리고 궤도에 의거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땅크사냥군조활동, 비행기사냥군조활동 등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전법으로 전쟁을 이끄시었다.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으로, 이것은 그이의 신념이었고 의지였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혁명의 주인을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혔다고, 이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도 하고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3년간의 반미대전도 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하였다

우리가 만든 초고전력전기료에 의한 강철생산





우리 식의 CNC설비생산

존관례를 깨뜨리고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었으며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었다. 그이의 손길아래 조국인민들은 자주정신의 강자들로 자라났고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확고히 선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 자기의 존엄을 떨치게 되었다.

고 교시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진리, 이것은 그이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사상이였고 신조였다.

바로 그이께서 변함없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아래 조국에서는 해방후 것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적위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었고 전후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하던 재더미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이 끝나게 되었다. 그후에는 수백년이 걸렸다는 공업화의 기

주체의 기치, 이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국의 운명과 더불어 더욱 굳건히 이어졌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립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그리고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오직 자주적립장에서 대하시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 이것이 장군님께서 견지하신 자주적원칙이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주체비료를 가득 실은 차들이 사회주의협동벌로 떠나간다.



주체섬유-비날론생산



고 창조적립장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주체88(1999)년 9월 장군님께서서는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이악하게 공장을 관리운영하고있는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남을 넘겨다보는것은 망국의 길이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들처럼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하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도 문제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의것이 얼마나 좋은가, 남의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좋은 우리의것을 창조하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장군님께서서는 늘 이렇게 당부하시고 이렇게 깨우쳐주시였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하나의 구두, 하나의 벽지를 보시여도 그것이 우리의것인가부터 먼저 물어주시고 철을 만들어도 주체철을 만들고 비료와 섬유를 생산하여도 주체비료, 주체섬유를 생산해야 한다고 것처럼 간곡히 교시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자주와 지배,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대결이 첨예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장엄한 진군이 힘차게 다그쳐졌고 그 흐름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 나라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에는 주체의 기치높이 선군정치를 전면

적으로 펼치신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밑에 우리 식의 CNC기술이 개발되어 고성능CNC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게 된것,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발사하고 자위적핵을 가지게 된것, 그 어떤 타격수단들도 척척 만들수 있는 자위적국방공업의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된것, 민족음식, 민족옷 등 민족적인것을 적극 장려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 민족성이 확고히 서게 된것... 이 모든것 역시 장군님께서 더욱 활짝 펼쳐주시고 더욱 굳건히 지켜주신 주체의 항로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국은 변함없이 그 항로를 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길을 걷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군대와 인민이 주체의 한길로만 나아가도록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실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지금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발걸음 따라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포성이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지구상에 자원고갈시기가 도래되고 조선반도에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침략적인 핵전쟁책동과 경제붕쇄, 심리모략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지만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다. 그 불길속에 최근년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떠서고 평양곡산공장, 금접체육인종합식료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많은 경공업공장들이 현대화되었으며 수산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발사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문에서 황금해라는 시대어와 함께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문학, 예술, 교육, 체육, 보건 등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일어나고 전국각지에 창전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 인민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건설되고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외세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로 하여 조국은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구상하시고 실현시켜 오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비롯한 력사적과제들이 하나하나 빛나게 완성되어가고있다. 국방건설도 주체적립장에서, 조국통일문제도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조국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주체라는 두 글자가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다. 짧은 력사적기간에 식민지약소국으로부터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사회주의조국의 력사는 주체의 향로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발전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지금도 평양에 거연히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조국의 하늘을 붉게, 더 붉게 물들이고있다.

글 본사기자 흥정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요리기술을 발전시켜나간다.



유치원생과 대학생

주체80(1991)년 9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사람이 시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시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당이 시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습니다.》

그이의 교시는 일군들에게 조국이 대국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속에서 어떻게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사회주의를 지켜왔는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였다.

1949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유럽경제협조기구》에 대항하는 쏘련(이전)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협조기구인 경제호상원조리사회(쎬브)가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였다. 그러나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쎬브》는 《통합경제》요, 《국제분업》이요 하면서 저들의 대국주의적야망에 그것을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도 《쎬브》에 들것을 권고하였다. 그때 《쎬브》를 일명 《사회주의협동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뿐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다 들어가있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 우리는 <쎬브>에 들지 않겠다, 우리는 유치원생이고 당신들은 대학생인데 어떻게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겨루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시며 그 기구에 들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그후 그들은 자기 나라에 큰 수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해놓고 우리에게 송전선을 늘어 전기를 끌어다 쓰라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저들에게 고분고분하게 하려는 하나의 《특혜》였으나 당장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것으로 하여 쉽게 받아들일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시였다. 먼 그곳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을 늘일바에는 그 돈으로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수력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건설하는것이 민족의 장래발전의 견지에서 보아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이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자립적민족경제의 길을 택하자 그들은 《민족주의》, 《고립주의》라고 비방하며 이모저모로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겠으면 하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것이다라고 하시며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그리고 꾸바에서 까리브해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자위의 군사로선을 내놓으시였다. ...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공업이 일떠서던 자랑찬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면서 조국해방 40돛행사에 왔던 다른 나라 대표단성원들이 무력시위를 할 때 땅크가 나가고 여러가지 장갑차와 자행포무기들을 보자 중국에서 가져온것인가 물었다고, 자체로 만든것이라는 우리 일군들의 말에 눈이 휘둥그래져서 조선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다 자체로 만들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였다고 감탄해마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지난날 우리가 자기의 힘을 믿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운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였는가 하는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여주고 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자주적인 독립국가 되자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고있기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지켜온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어떻게 곳곳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승리하여왔는가를 일군들에게 감명깊게 말씀해주시였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나아가는 사회주의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망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일군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시였다.

* * *

일 화

성불사에서 찍으신 사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자리잡은 정방산성안에는 성불사가 있다.

성불사는 898년에 처음 세우고 고려시기(918년-1392년)에 고쳐지은 절이다.

그 성불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 5월이었다.

정방산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정방산은 꽃이 유명하다고 하시면서 성불사를 비롯한 력사유적유물들을 돌아보시였다.

정방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꽃구경도 하고 고적도 구경한다는 도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진사들이 와서 사진도 찍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경하겠다고 하면 보여주도록 하라고, 우리는 성불사를 통하여 선조들의 건축술을 자랑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새기는 일군의 머리속에는 어느 여름날 그이께서 이곳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날도 옛성터의 돌층계를 밟으며 성불사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극락전앞에 이르시여 여기에 불상들이 있었겠는데 다 어떻게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교양적가치가 없어서 치워버렸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교양적가치가 없다라고 되뇌이시며 물론 부처가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것은 아니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있는 부처는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반증자료로 될뿐아니라 당대사회의

조형예술을 연구하는데서도 가치있는 민족유산이라고 일깨워주시며 불상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보관관리를 잘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이 절간은 고려시기 건축물들중에서 오랜것들중의 하나로서 우리 선조들의 세련된 건축술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며 고려사람들의 슬기와 재능이 우리 시대에 와서 더 빛이 나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하여 부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성불사를 비롯한 력사유적들은 더 잘 보존관리되었으며 정방산은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교양장소로,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러지게 되였다.

일군이 그때의 일을 되새기며 그이를 우러르는데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 절간에 왔던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도 그이께서는 좀처럼 뜨실념을 앓으시고 성불사는 898년에 건설한 오랜 건물인데 전쟁시기 [주체39(1950). 6. 25.-주체42(1953). 7. 27.]에 원수들의 폭격으로 마사진것을 다시 복구한것이라고, 잘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찍으신 사진, 정녕 거기에는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력사유적유물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보존관리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이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가 담겨져있었다.

* * *

기자: 오늘 조국인민들속에서는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해지고있다. 국내산상품들이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많아진것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가늠할수 있다.

정명옥: 그렇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우리 평양제1백화점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사서 리용해보면 아마 국내산상품의 진가를 더 잘 알게 될것이다.

기자: 우리도 이렇게 평양제1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을 타고 여러 매대를 돌아보니 어디에나 질 좋은 우리 상품들이 가득가득 쌓여있다.

정명옥: 저렇게 가득쌓인 상품들과 만족한 웃음을 짓고있는 손님들의 행복스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

주체100(2011)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였다.

포근한 마안산담요도 끌어보시고 여러가지 비단천도 만져보시였으며 신발들의 형태와 무게까지 가늠해보시였다. 고리버들로 만든 키를 가리키시며 오래간만에 본다고, 가정살림을 하는데는 키도 있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느 매대에서 그 어느 상품을 보실 때에나 그것을 즐겨 리용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시는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물어주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기름매대에만도 무려 세차례나 들리시

수요와 기호에 맞게

- 평양제1백화점 지배인 정명옥과 본사기자의 대담 -

였다. 아래층에 있는 기름매대를 보시고 2층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여 기름매대에 들리시였고 백화점을 다 돌아보신 후에도 기름매대를 다시 찾으시여 자신이 제일 걱정하는 문체가 바로 인민들의 먹는 기름문제라고, 콩기름, 참기름, 들깨기름, 유채기름, 강냉이기름 등 다섯가지이상의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무엇을 하나 보시면 더 좋은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늘 관심하시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몸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나는 앞으로 상업봉사활동을 더 잘 짜고들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기자: 그때로부터 지난해말까지 평양제1백화점전시회가 여러차례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상품들의 가지수가 대폭 늘어나고 질도 몰라보게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정명옥: 옳은 말이다. 주체99(2010)년 12월에 막을 올린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는 한해에 두번씩 진행되는데 이를 계기로 상품들의 수준이 부쩍 올라가고있다. 질 좋은 여러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팔아줄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은 중앙공업을 따라앞서고 중앙공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들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



정명옥 (가운데)

해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상품확보를 위하여 근 200개나 되는 공장들에 내려갈 때마다 내가 목격하는것은 나라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는것이다.

오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되고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그쁘히 갖춘 경공업공장

들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나는 앞으로도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생활수준에 맞게 상품확보사업을 따라세우며 생산자들과의 주문계약 등 상업봉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해나갈것이다.

* * *





—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길에서 —

《은하수》 화장품 생산자들의 목표

평양제1백화점과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비롯한 조국의 크고작은 상업봉사기지에서 여성들의 눈길을 제일 먼저 끌고있는것이 형형색색의 《은하수》 화장품들이다.

《은하수》 화장품은 샴푸, 린스, 살결물, 크림, 분크림, 연지, 머리기름, 화장비누 등 그 가지수만 해도 수십여가지나 된다.

조선여성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인삼, 알로

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에를 비롯한 천연약재들을 첨가한 기능성 화장품들을 만드는 평양화장품공장은 평천구역에 자리잡고있다.

공장에는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하여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주체92(2003)년 8월 새로 개건된 공장을 찾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조종실에서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으로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지난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찾으시여 화장품에서부터 사람들을 문명한 사회어로 선도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은하수》 화장품이 인민의 사랑을 받고 화장품에서부터 사람들을 문명한 사회어로 선도해나가려면 뭐니뭐니 해도 과학기술을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의지이다.

《은하수》 화장품 생산자들모두의 목표는 자

기들이 생산하는 화장품의 질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장품의 질보다 앞세우자는 것이다.

하여 공장에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열풍이 세차게 타빈지고 있다.

공장에서는 경공업과학분원 박사원 현지학습반을 조직하고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들을 비롯한 일꾼들이 망라되어 실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과학기술 보급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주별, 월별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강의를 실속 있게 진행해나가는 한편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학습조건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다.

공업시험소 연구사들은 화장품에 대한 기호와 요구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것만큼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개발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비등된 열의에 맞게 생



봉지크림생산

산과 기술혁신경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직장별, 작업반별, 종업원별로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창의고안 및 기술혁신, 상표창작을 위한 군중현상응모와 합평회들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들이 그대로 생산실천에 구현되고 있다.

지배인 김현은 말하였다.

세수비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우리는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발전 전략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우리의 힘과 지혜로 벌려나가는 최첨단돌파전

-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부총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리원철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금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큰 몫을 맡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최근시기 이룩한 성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였다.

리원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

키기 위하여 지금 대학안의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전력, 석탄, 금속, 화학 등 기간공업과 경공업부문에서 질실한 해결을 기다리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지난해와 올해에 들어와 430여건의 연구과제들을 완수하여 인민경제의 정보화,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3월 대학의 류성철, 문소민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코드쉐프》(국제인터넷 프로그램작성도전)경연에서 1등과 2등을 하여 조국의 영예, 대학의 영예를 떨치였다.

기자: 인민경제의 현대화



를 실현하는데서 국산화비중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대학의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기 우리가 돌아본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있었다.

평양시비섯공장(왼쪽)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오른쪽)의 현대화를 실현해나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리원철: 그렇다. 설비의 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최근에만도 대학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여 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으며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전력생산의 과학화를 위한 부하전력관리장치를 연구도입하여 연료의 소비단위를 낮추었다. 그리고 수질종합수감부를 자체의 힘으로 창안 제작하여 평양메기공장파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어 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대학에서 만든 물처리장치도 여러 부문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물처리장치를 도입한 결과 평양시 사동구역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남새온실들에서는 그전에 비하여 색과 맛이 좋은 온실남새들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온실남새들에 생기는 병도 예방하게 되었다. 평양시 버섯공장에 파견된 연구사들은 버섯생산공정체계에서 설비의 90%를 우리 식으로 창안제작하여 공장로동계급에게 우리의것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기자: 앞으로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리원철: 옳은 말이다. 우리앞에는 넘어온 평마루보다 넘어야 할 과학의 평마루가 더 높다. 평양시버섯공장 2단계 현대화와 식료공장들에서의 자동화, 무균화, 무인화, 무진화실현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실력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 국제대학생 프로그램경연에서 대학의 학생들이 순위권에 입선하는 문제 등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려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에 충정을 다해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우리는 그 충정의 일념을 안고 더 좋은 연구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오늘의 최첨단돌파전에서 승리자가 되겠다.

* * *



민족적특색을 더 잘 살리기 위해



여름계절이라 수도의 거리마다 꽃향기 그윽하다.

자연의 향기뿐만아니다.

휘날어진 버드나무가지아래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춤추듯 걸어가는 여성들이 풍기는 민족적향기도 거리의 풍치를 한결 이채롭게 해준다.

우리도 그 향기에 이끌려 단골손님이 늘어난다는 대성구역종합양복점 조선옷점을 찾았다.

마침 연한 미색과 연분홍빛의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중년의 부인과 그의 딸인듯싶은 처녀가 옷점을 나서고있었다.

마침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인민대학습당 번역원인 최명과 그의 딸 리설이 방금 주문하였던 조선옷들을 찾아 입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젊어보인다는 우리의 말에 최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딸이 이 옷점에서 조선옷을 잘 만든다고 하기에 옷을 주문했었습니다. 듣던바그대로 재단도 세련되고 바느질도 곱게 하였습니다. 조선기와집추녀의 곡선과 같이 하늘을 향한듯 한 느낌이 안겨오게 소매의 배래선도 우아하게 만들고 도련선도 맵시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스스로그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자 옷점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10년은 젊어보인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정말 우리의것에 대

한 자부심이 더욱 커집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듯 그의 딸 리설도 처녀들속에서 누가 사계절 조선치마저고리를 더 멋있게 해입는가 경쟁을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말에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가 옷점안에 들어서니 옷점은 사람들로 흥성거렸었다.

회장저고리를 입어보며 미소를 짓는 여성,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시아버지의 옷맵시를 보여주는 며느리, 여러 도안을 보며 고르고 또 고르는 여성, 재봉공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로인부부...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절로 흥그러워졌다.

우리는 먼저 도안창작가이며 재단사인 윤성희를 만났다. 그는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

은 계절적특성에 맞게 따뜻한 봄날에는 은근하면서도 밝은 색갈인 연분홍색, 연록색, 미색계통의 옷을 많이 입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색갈인 옥색과 연한 푸른색계통의 옷을 즐겨입었습니다. 옷들의 무늬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는데 옷감의 재료와 옷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감과 풍속을 살려 도안을 창작하고 그에 재단을 따라세우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민족옷을 만드는것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이 옷점에서는 하나같이 민족적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사람들의 개성적특성에 맞게 조선옷을 만들고있다.

재단사와 재봉공들은 조선

치마저고리를 만드는데서 조선여성들의 몸매에 어울리고 고상함과 우아함, 순결함을 더해 주는 치마저고리의 특징이 두드러지면서도 옷의 가장자리 즉 옷깃이나 도련, 소매끝, 치마단 등 치마저고리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선들을 우아하게 뽑아주기 위해 노력을 다해가고있다.

조선바지저고리 역시 남성들의 나이와 체격에 어울리도록 다양하게 만들고있다.

재봉공 송금숙의 말에 의하면 바지저고리를 주문하는 남성들이 늙은이들뿐아니라 최근에는 결혼식을 하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젊은 사람들속에서도 늘어나고있다고 하였다.

옷점책임자 리명숙은 《우리는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조선옷을 만들기 위하여 재단사, 재봉공들의 기술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 파정에 곡선미를 살리기 위한 문제, 도련선을 맵시나게 뽑기 위한 문제, 가공에서 깨박이바느질을 세련시키기 위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조선옷만들기에서 민족적특색을 더 잘 살릴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옷점에서 만든 조선옷들은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철 창 속 에 서

(전호에서 계속)

독립운동의 지도적위치에 있던 인물들가운데는 중국을 등에 업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쏘련의 힘을 빌어 일본을 타승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미국이 조선독립을 《선사》해줄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사대주의를 하게 된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은데 있었다. 민족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었기때문에 튼튼한 기반을 가질수 없었으며 인민들의 지지도 받을수 없었다.

인민들과 리탈되어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앉아 말공부와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지 않은 본질적약점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속에서도 나타났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투쟁에 동원할 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운동내에 발생한 종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종파분자들이란 민족주의계열의 부르조아지나 소부르조아인테리들과 몰락한 봉건귀족, 량반출신인테리들로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로동운동이 급속히 양양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는 시대적 추세에 편승하여 맑스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의 조류속에 휩쓸려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파벌을 형성하고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을 벌렸다.

종파분자들은 온갖 사기협잡과 권모술수에 매달리다 못해 폭력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깡패들처럼 서로 치고받는 싸움까지 벌리었다.

종파분자들의 분파책동으로 하여 결국 조선공산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을 보장할수 없었으

며 일제의 탄압을 이겨낼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과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돌아다니었다.

나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보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나는 감방에서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력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여야 하겠는가, 혁명의 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은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업부터 착수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사회계급적제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로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에국력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에 불러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조선혁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관점이 명백해지고 로선과 방침도 뚜렷하게 머리속에 그려볼수 있게 되니 하루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나는 출옥날자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리기로 하였다.

우리는 《학생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동무들과 함께 출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짜고들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투쟁방법은 단식이였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고 투쟁에 들어섰다.

단식투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잡범들까지 망라된 이번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단식이 시작되자 매 감방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나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그릇의 음식을 놓고 싸우던 잡범들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학생사건》으로 들어온 우리 동무들이 소리없이 교양사업을 해온 보람이 컸다.

감옥밖에 있는 동무들도 우리의 출옥투쟁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옥중투쟁에 호응하여 길림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폭로하면서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군벌당국은 굳게 단결된 우리의 투쟁앞에 굴복하고야말았다.

나는 1930년 5월초에 길림감옥을 나셨다. 궁룡식으로 된 감옥문을 나서는 나의 가슴은 신념과 열정으로 차고넘치였다.

나는 감옥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총화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평양감옥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나는 이렇게 길림감옥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조선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였다.

불행한 망국노의 아들들이여서 아버지도 나도 감옥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끝)

수 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신 때로부터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도 수없이 바뀌었다.

하지만 꽃피는 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락엽지는 가을에도 눈내리는 겨울에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진다.

그이의 품속에서 한뼘두뼘 재능의 키를 자라온 나였기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환하신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항상 그리움에 잠기곤 한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79(1990)년 12월 31일 만경

대학생소년궁전에서서는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이 진행되었다.

함흥시 광명인민학교(당시)에서 공부하던 나는 전국독창경연에서 1등을 한것으로 하여 평양에 올라와 설맞이모임에 참가하였다.

노래와 춤 《행복의 꽃수레》로 막을 연 모임은 다채로운 종목들로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이어 꼬마독창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두번째로 출연하게 된 나의 심장은 무던히도 쿵쿵 뛰었다. 아마 처음 설맞이공연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그랬겠지만 그보다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무대에 서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고나니 뉘뉘던 심장의 박동이 순간에 고르와졌다. 꼭 친아버지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 《우리 나라 설날》을 불렀다.

우리 나라 설날은야
어데서 밝나
두둥실 해가 솟는 동해바달가
설날은야 설날은야
원수님 높이 모신
설맞이 꽃무대 여기서 밝아요
...

후에 안 일이지만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옆의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노래부르는 학생이 지금 10살인데 전국독창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가 어리지만 민요를 제법 잘 부른다고 치하해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러시고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꼬마독창무대에 출연한 학생들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그들은 모두 재간둥이들이라고 교시하시며 독창을 잘한 학생들의 이름을 다시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특히 민요를 잘 부른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었다.

그때 나의 어린 마음에도 눈물이 고이였다.

그것은 나의 재능을 찾아주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였기때문이다.

나라일을 돌보셔야 하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76(1987)년 6월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종합공연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동화무용에서 독방창하는 어린이가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치하해주시며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면 10년은 더 젊어진다고 하시었다.

그때 독방창을 한 어린이가 바로 나였다. 무대앞이 아니라 무대뒤에서 부른 노래에서도 남다른 특기를 발견하시고 키워주신 그이의 다심하고도 세심한 손길이 있어 나는 씨꿀새독창가수로 이름을 떨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마다 설맞이공연에 출연한 나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여러차례 과분한 평가를 해주셨으며 자신의 옆자리에 나를 세우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나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도 참가하고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상자로 될수 있었다.

어찌 나 하나뿐이겠는가.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열매가 맺어지듯이 그이의 품속에서 어린이들의 재능이 꽃피나고 평범한 사람들이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으로,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 인민배우로 자라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1년 365일 언제나 우리 인민모두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고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은 끝이 없다.

금성학원 교원 박옥실

상식	동계 동물 보호구	동계동물보호구는 량강도 백암군 동계구에 위치하고있으며 면적은 1 900여정보에 달한다. 이 일대에는 보호적가치가 큰 사슴, 누렁이, 검은돈, 사향노루, 산양, 큰곰, 곰 등이 분포되어있다. 조국에서는 보호적가치가 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체92(2003)년 4월 내각결정 제20호로 이 일대를 동물보호구로 설정하였다. 보호구에는 해발높이가 1 800m이상의 쾌상봉, 대덕산, 설령 등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산꼭대기는 벼랑과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있다. 또한 산기슭과 골짜기들에는 분비나무, 이깔나무 등 바늘잎나무와 자작나무, 박달나무 등 넓은잎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여러가지 떨기	나무와 초본식물들도 많이 자라고있다. 그리고 보호구에는 동계수의 여러 지류들이 골짜기마다 흐르므로 물원천이 매우 풍부하다. 이러한 지형 및 서식조건으로부터 보호구일대에는 많은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특히 보호구일대에는 산양, 사슴, 누렁이, 사향노루, 검은돈을 비롯하여 수십여종의 산짐승들이 분포되어있으며 숲속에는 꿩, 낭비둘기, 삵, 꾸기, 검은딱따구리 등 100여종의 새들이 있다. 그리고 북살모사, 긴꼬리도마뱀, 북개구리, 합수도롱뇽 등 양서류와 파충류들도 드물게 나타나며 보호구안의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드는 동계수에서는 산천어, 산중계들도 볼수 있다.
	* * *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분

조국인민은 누구나 자기 령도자에 대한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동지를 경애하는 원수님이라고 부르고있다.

3년전 주체101(2012)년 7월 17일 잊지 못할 그날부터였다.

바로 그날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셨다는 소식에 접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이어 전해진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한 공식보도가 다름아닌 준공을 앞둔 룡라 인민유원지를 현지지도하신것이라고 생각할 때 군인건설자들에 의하여 일떠선 인민의 유원지부터 먼저 찾으신 원수님의 현지지도가 가지는 의미는 얼마나 비상한것인가.

선군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려온다.

일찌기 총대와 남다른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을 이끄시는 나날에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기준은 인민의 리익과 행복이였고 국사중의 최대국사로 내세운것도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군력강화였다.

올해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신년사에서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하신 후 그길로 인민군대가 건설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었다.

하나같이 보동보동하고 씩씩한 아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이

보고싶었다고, 원수님이 지어주신 새집이 정말 좋다며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릴 때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잇달아 그이의 현지도의 길은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총포사격경기대회으로 향하였다. 총대이자 아이들의 웃음, 인민의 행복이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그이의 온넋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멸적의 포신들이 시뵐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목표를 명중할 때마다 그이의 눈가에서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가 서리발쳤다. 조국의 전진을 저애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일격에 짓밟개버리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 훈련,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 타격훈련,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켓시험발사 등 련속적인 타격훈련을 지도하시며 그이께서는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보여주셨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고 적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게 하였다.

그이의 슬하에서 나날이 역세여지는 무적의 강군이 있기에 조국인민은 조국해방 70돛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돛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었다.

그 즐기찬 투쟁의 나날 선군의 위력속에 아름답게 솟아나는 창조물들을 보시며 그이께서 얼마

나 기뻐하시였던가. 하나같이 탐스러운 버섯들이 대량생산되는 평양시버섯공장을 찾으시여 새해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고 만가동,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는 금첩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등을 돌아보시며 인민의 커가는 기쁨을 그려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아이들과 늙은이들을 위해 주고 과학과 인재를 중시하는 것은 그이의 천품이시다.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건설과 평양시양로원건설, 과학기술전당건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바치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은 참으로 가슴뜨겁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만 보아도 그이께서는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갖춘 웅근 하나의 거리를 형성할데 대한 구상을 제시하시고 그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였으며 친히 전용기를 타시고 건설장을 부감하시며 지도하시고, 전용기에서 내리시는 그길로 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인민군대가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더욱 절감하고있다.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며 받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더욱 확신하고있다. 하기에 오늘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밖에 우리는 모른다고.

본사기자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다.

70년에 걸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사상이 없는 당이 태어날수도, 존재할수도 없으며 사상사업을 내놓은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왔기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70년동안 자기의 기밭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다.

돌아켜보면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사상개조운동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11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확대위원회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제시하시였다. 일제시대의 온갖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을 버리고 새로운 건국사상으로 무장하며 새 조선건설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일대 사상개조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온 나라에는 새로운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과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키우며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민족적기풍을 창조하기 위한 일대 사상개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 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를 거쳐 수십년세월 모든 사업의 주선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나갔다.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이다. 혁명활동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

에 큰 힘을 기울여오신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가 뚜렷이 명시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끌기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주체사상교양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온갖 낡고 이색적인 사상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강도높이,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그 파정에 사회주의사상진지가 자기의 순결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더 공고화되게 되었다.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서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내용, 사상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원칙과 방법,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폭발되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구현하여오신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일관한 원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로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하시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지!》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은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정신으로 끓게 하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게 하고있다.

오늘도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백전백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승리를 안아온 지략

장구한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 하시며 보여주신 령활무쌍한 전략전술, 신묘한 지략과 슬기, 신출귀몰하고 천변만화하는 전법들은 오늘도 유격전의 본보기로 전해지고있다.

단숨에 백리, 수백리를 달려 적들을 혼란시킨 다음 답새기기도 하고 멀리 이동하는척 하다가 적들의 코밑에 슬쩍 돌아앉아 치기도 하며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가 하면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치기도 하는 전법, 적들의 한가운데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놓고는 슬쩍 빠져나와 저희들끼리 맞붙힐하게도 하고 적이 집중하면 분산시켜 놓고 치고 적이 분산하면 집중하여 치는 등 도저히 가늠할수 없고 종잡을수 없게 변화무쌍하고 신출귀몰하는 이런 기묘한 전법과 전술들에 대하여 인류전쟁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후물등판에서 쓰시였던 전법도 그중의 하나이다.

행군대오가 길잃은 하늘소처럼 졸졸 따라오는 적들을 끌고 하루길이 잘되는 부후물등판을 두바퀴 돌았을 때 어디신가 적 《로벌대》가 앞에 또 나타났다.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에게 발구채만 한 나무를 찍어메고 더 빨리 행군하도록 하는 한편 뒤따르는 적들과 앞에 새로 나타난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들이대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대원들이 메고온 나무를 눈우에 드문드문 서있는 나무그루터기들우에 건너놓고 흔적없이 빠져나가도록 하시였다. 이것을 전혀 알리 없는 적들은 유격대를 《전멸》시킬 때는 왔다고 악을 쓰며 제놈들끼리 치렬한 개싸움을 벌리다가 무리죽음을 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전법으로 하여 적들을 무서운 죽음과 공포에 떨게 한 전투들은 비단 그뿐이 아니였다.

불의의 기습전으로 승리를 거둔 보천보전투, 동녕현성전투, 만강전투, 적들을 끌어내다가 유리한 지형에서 답새긴 간삼봉전투,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전법으로 승리한 무송현성전투, 달려드는 적들을 독안에 든 쥐처럼 깊은 함정끝에 몰아넣고 승리를 거둔 홍두산전투, 왕청현 자괴거우와 몽강현 소사하수에서 진행한 매복전투, 《가랑잎으로 군사를 나르신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겨난 되골령전투, 대부대가 일행천리전술로 갑무경비도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무산

지구진공작전...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주체26(1937)년 6월 4일밤의 보천보전투는 주체적인 유격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용감하고 민활한 전투행동으로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일제의 폭압기구와 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습격소탕하고 보천보를 해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의 총독부가 치안유지를 담당하던 국내에 대부대로 보무당당히 들어가 적통치기관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린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밀뿌리채 뒤흔들어놓은 력사적사변이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명무명의 전투들마다에서 거둔 승리는 일제의 기도와 전술을 앞질러 간파하고 천변만화의 유격전법을 활용하여 소멸해버리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립기응변의 지략과 기묘한 전술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였다.

하기에 후날 당시 관동군 소대장을 하였던자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토벌대〉들은 김일성장군께서 이끄시는 항일빨찌산과 맞다들리기만 하면 매번 참패를 당하여 큰 손실을 보군 하였다. 후에 모든것을 똑똑히 알게 되어 더욱 놀라게 된것은 그때 그토록 명성이 높으셨던 김일성장군께서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였다는 점이다. 그분께서는 그처럼 젊은 나이에 벌써 정치군사적천재로 온 대륙에 명성을 떨치고계셨으니 김일성장군이야말로 희세의 영웅이라고 나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시아의 맹주》라고 떠벌이던 일제의 코를 꿰고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신비로운 전법이 있었기에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전법은 그후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더욱 심화발전되었다.

하기에 오늘도 수수천년 그리도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던 걸출한 위인, 민족의 위대한 은인을 모신 감격과 환희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되어 창작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세기를 이어 이 땅을 진감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녀의사의 탐구, 정열, 성공

지난 《금수강산》잡지 주체 104(2015)년 5호에는 대관군의 한 노동자처녀 림송미가 쓴 수기 《다시 찾은 나의 얼굴》이 실리었다.

독후감이라 할가... 외국출장 길에 올랐던 한 사람이 조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고려항공기안에서 잡지에 실린 그 기사를 읽었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화상당한 처녀를 위해 8년 동안에 한두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하였다는데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림현단선생이 30여년동안 크고작은 수술을 1만여건이나 하였다는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

하기에 우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녀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에 전한다.

《나는 왜 의사가 되었는가?》

요즘 평범한 한 녀의사가 마치 유명한 인물이나 된것처럼 그 이름이 자자하다. 그것은 자기의 얼굴을 잃고 생을 포기할번 하였던 림송미가 림현단과장에게서 8년나마 치료를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였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어느날,

대관군의 노동자처녀가 심한 화상을 당하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된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이름은 림송미, 나이는 19살...

처녀의 얼굴은 눈까풀과 코, 입술이 다 타버리고 불과 턱 등은 숯덩어리처럼 된 얼굴아닌 얼굴이었다.

림현단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20여년동안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지만 온 얼굴이 험하게 이그러진 환자는 처음이었다. 그때 환자보다 더 고민한 사람은 림현단이었다. 그렇다고 경험을 내세우고 대담하게 접어들었다가는 더 큰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었다.

그날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자 현단은 스스로 이런 물음을 던졌다.

《나는 왜 의사가 되었는가?》

현단은 중학시절부터 그토록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영예군인이었던 아버지와 전화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소생시켜준 간호원이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희망대로 마음껏 의공공부를 하던



림현단

학창의 나날, 화상당한 한 소년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친 천리마대고조시기 함흥시 의료일군들의 미풍을 자기도 따라배우리라 마음다지던 그 나날을 되새겨보았다.

인간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내세워주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의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용기를 내자, 주저않을수 없다, 해야 한다.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송미의 얼굴을 되찾아줄 결심을 새롭게 굳히며 현단은 밤늦도록 잠들 줄 몰랐다.

들우에 피어나는 꽃

림현단을 만나기가 참으로 조런치 않았다.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면 그때마다 현단은 수술중인가 하면 입원환자들 때로는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술희망자들과의 상담중에 있곤 하였다.

녀의사의 반생은 이렇게 바쁘게 흘러갔을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언제인가 송미가 우리에게 한 말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왔다.

《과장선생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다 바쳐왔다. 8년나마 병원에서 선

렸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러한 때 조국에서는 현단을 여러달동안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의학교류대표단에 망라시켜주었으며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일군들은 그의 치료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현단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세계미용외과계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을 수없이 탐독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기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일 방도를 모색하였고 조선사람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기구와 약물들도 창안하였다. 하여 지난해 가을, 현단은 세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정신육체적부담을 안겨주었다. 현단은 송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그가 붕대를 풀 때까지 5일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붕대를 푸는 날, 현단은 송미뿐 아니라 과의 모든 의료일군들, 환자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송미는 거울에 비쳐지는 발기우리하고 생기도는 새 코를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다시 찾은 자기의 얼굴위로 비쳐지는 현단의 정깊은 모습도 함께 보았다.

들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이 키운것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으며 인간을 위하여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힘,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것을 현단은 송미의 수술을 마치며 더욱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우리는 한 녀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지으며 그의 말을 한마디 적고싶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용수술 그자체에 천문학적인 수자로 값을 정하지만 우리 제도에서는 인간 그자체에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우월한 제도에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 그 제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나의 행복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① 아침밥을 먹지 않는 습관
여러가지 조건으로 아침밥을 건드면 오전중에 정신육체적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며 분비된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차 머리아픔과 가슴쓰림, 피로를 느끼게 된다.

② 잠자기 전에 치솔질을 하지 않는 습관
③ 잠자기 전에 화장했던 얼굴을 씻지 않고 자는 습관

일부 여성들은 피곤하다고 하여 낮에 화장했던 얼굴을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여성들은 화장품은 피부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씻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는데 사실 좋은 현상이 못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은 화장품속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것이다. 그런 화학물

질이 피부의 구멍을 막아 불순물과 땀을 제때에 내보내지 못하여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다래끼가 나는것과 같은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피부알레기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④ 옆드려자는 습관
어떤 사람들은 옆드려자면 편안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옆드려자면 척추변형이 쉽게 오며 근육과 인대를 긴장시켜준다. 또한 가슴, 심장, 폐, 눈 등을 모두 압박하여 심장파 폐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며 깨어나면 눈에 피

가 진다.
⑤ 오줌을 참는 습관
오줌을 참으면 방광염이나 방광암에 걸리기 쉽다. 때문에 오줌을 억지로 참지 말며 만사를 제쳐놓고 누어야 한다.

* * *

생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그 정성이 나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님을 매일, 매 시각 느끼었다.》

실지 현단은 그 어느 환자에게나 자기의 의술과 정을 다 기울여왔다. 그는 늘 수술받은 환자들이 다음번 수술을 위해 몸을 빨리 추세워야 한다면서 영양식품들도 한가득 안겨주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입원실부터 먼저 둘러 매 환자들의 몸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따르는 치료대책을 세우는것을 생활화하였다. 송미를 치료하는 과정에 그는 자기의 의술이 한계점에 이르

계적으로 발명은 되었지만 아직 림상실험경험이 없는 코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빈틈없는 기술적준비밑에 대담하게 수술장으로 들어갔다.

그날 송미의 코수술은 8시간나 진행되었다. 긴장한 수술은 무거운

남편과 함께 미술의 조형학적원리를 체득한다.





리은성



조경민



김정철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떠올린 주인공들

올해 1월과 2월에 진행된 《코드쉐프》(국제인터네트프로그래밍작성도전)경연은 치열하게 벌어졌다.

열흘동안에 제시된 10개의 문제에 한하여 풀이 결과의 정확성정도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경연에는 프로그램분야에서 《황제》로 자처하는 전문가도 있었고 경연마다에서 우승을 양보하지 않는 단체도 있었다.

매달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연은 세계3대인터네트프로그래밍경연들중의 하나로서 해당 나라의 교

육수준과 지적잠재력을 내다보는 《창문》으로도 인정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연에 참가하는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관심과 승벽심 또한 이만저만 아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이 경연에 주체102(2013)년부터 참가하고있다. 대학은 경연에 참가한 첫해부터 여러번 우승을 쟁취하였으며 올해 1월과 2월경연에서도 련승하여 인터넷상에 또다시 람홍색공화국기를 떠올리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리은성, 김정철, 조경민학생

리은성과 그의 동무들



들이었다.

리은성, 김정철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하여 소문을 냈다. 평안북도 신의주제1중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들이 평양제1중학교로 떠나던 날 부모들과 교원들은 이렇게 당부하였다고 한다.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공부를 직심스레 하여 꼭 조국을 빛내이거라.》

그들은 그 당부를 잊지 않았다. 리은성은 2008년과 2009년에 있는 국제수학올림픽에서 련승하여 2개의 금메달을 받았으며 김정철 역시 2009년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승하였다.

평양에서 태어난 조경민에게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본 사물현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림으로 그리는 특기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미술공부를 시킬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과정에 그의 진짜 재능, 수학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나타났다.

주체102(2013)년 제38차 ACM국제대학생프로그래밍경연 아시아지역경연에 참가하여 금상을 쟁취하고 조국을 빛내인 리은성, 김정철, 조경민학생들은 이번 《코드쉐프》경연에서도 평시에 다져온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언제나 자기 식의 독특하면서도 간결한 풀이법을 내놓곤 하는 리은성은 2월경연에서 난도가 매우 높은 9번째 문제를 짧은 시간에 풀어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것은 6 100여개 단체중 문제를 푼것은 8개 단체밖에 안된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마지막까지 이악하게 파고드는 인내력과 지구성을 가진 김정철학생도 다를바 없었다.

2월경연의 마지막문제풀이에 진입하였을 때 그는 새로운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경연조직자측에서 등수를 명백히 하자는 의도에서 마지막문제를 바꾼것이였다. 승부에서 결정적작용을 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맞닥들었을 때를 돌이

제38차 ACM국제대학생프로그래밍경연 아시아지역경연에서 금상을 받은 조경민, 리은성, 김정철



경연에서 풀었던 문제를 설명해주고있다.

켜보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번 경연에 참가하여 경험도 있고 우승도 하였지만 솔직히 말하여 그때 당황해지고 조바심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 분발하여 조국을 빛내이라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당부가 귀전에 울리며 나의 마음을 다잡아주어 마침내 높은 수준의 풀이결과를 찾아내고 프로그램경신의 <마라손>을 승리로 장식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마음은 조경민도 같았다.

복잡한 문제들을 오유없이 푸는 그의 특기는 1월경연 마지막문제풀이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기발한 착상으로 마지막도전문제의 본질을 확고히 틀어쥐고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대한 높여나간 그는 경연마감 2시간전에는 그 어느 단체도 따라올수 없는 높은 성능을 가진 풀이결과를 제출하여 우승하였다.

2월경연이 끝난 다음 《코드쉐프》경연조직자측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김일성종합대학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여왔다.

《당신들의 우승을 축하한다. 우리 협회와 전세계의 경연참가자들은 경연문제들에 대한 당신들의 사고방식을 알고싶어한다. ...》

세계가 알고싶어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우승의 비결은 무엇인가.

물론 그들은 뛰어난 수학적식과 알고리즘실력을 소유하고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에 대한 보답의 일념으로 불타는 강한 정신력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실력과 보답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또다시 인터넷상에 떠올리게 한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가정의 대학졸업생들을 껴안으며

얼마전 취재길에서 돌아오던 우리는 룡흥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저녁해빛을 받아 번쩍이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아름답게 변모된 보통강반의 경치가 한데 어울려 마치 한쪽의 그림을 보는것 같았다.

우리가 날을 따라 변모되어가는 수도의 모습을 바라보고있는데 꽃다발을 안은 산뜻한 대학생교복 차림의 녀학생을 둘러싸고 즐겁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보아하니 그들은 한 가정 같았다.

그들에게 다가간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가고 묻자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지난 4월에 평양의국어대학에 입학한 우리 조카가 이번에 대학적으로 진행된 학과경연에서 1등을 하여 온 집안이 모여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중입니다.》

알고보니 그들은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2동 16 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배창덕(55살)과 그의 형제 학과경연에서 1등을 한 조카를 축하해준다.

들이였다. 우리는 기쁜날 집으로 함께 가자고 무작정 잡아끄는 그들에게 이끌려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였다.

그의 집에 들어선 우리는 한장의 졸업증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의 첫 군사정치학교였던 평양학원의 졸업증이였다.

《저 졸업증은 60여년전 우리 아버지가 평양학원을 졸업하고 받은 졸업증입니다.》

색날은 졸업증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배창덕이 하는 말이였다.

빈농출신인 아버지가 해방후 문맹을 퇴치하고 땅을 분여받게 되자 피로써 찾은 조국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군대에 입대하던 이야기, 그 후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평양학원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도 들려주며 그는 졸업증은 집안의 가보라고 하였다.

9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자기는 지금 어느 중앙기관의 과장으로 사업하고있는데 대학을 2개



배창덕 (가운데)

나 졸업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저는 사업상 다른 나라에 자주 나갑니다. 제가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자연히 우리 집안이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온 집안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에게 돈이 많다는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좋아서이다라고 말해주곤 하지만 처음엔 그들이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자기 형제 9남매모두는 지금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일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배창덕의 형제들과 그 자식들은 대학에 가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겼고 소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대학공부를 하는데 돈 쓸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로부터 교복과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를 하였다.

그의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가문에 대학졸업생이 몇명이나 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물음에 배창덕은 《몇이더라...》 하더니 한명한명 손으로 꼽아내려갔다.

《둘째 누이와 매부가 남포사범대학, 조카가 남포수산대학, 셋째 매부가 김책공업종합대학, 형수가 평양교원대학, 여섯째 동생이 평양건축종합대학, 매부가 김일성종합대학, 처남이 평양건축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 처제가 평양미술대학...》

그러던 그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그러니 우리 가문에 대학졸업생만도 30명이 넘는구만요. 오늘 뜻밖에도 우리 가정의 대학졸업생을 껴안으니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나라에서 결코 돈이 많아서 무료교육을 시키는것이야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말끝을 흐리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혜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가는데 보답이 따라서지 못하니 안타깝다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큰 사업성과로써 그 은덕에 이바지하겠다는 말밖에 할수 없는것이 자기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가정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집을 나섰다. 거리로는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보통강구역직관물장식사업소에서 일하는 넷째 매부 박찬호 (왼쪽)



간석지건설지도국에서 일하는 처남 김정남



건설부문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여덟째와 아홉째



배창덕의 아들



모든것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올해 조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주체 34(1945). 10. 10.]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 104(2015)년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에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이 말을 되새겨보면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기발이 우렁이 떠오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당,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당, 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역세계 투쟁하는 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이다.

오늘 당이 들고나가는 구호도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이며 당활동의 최고원칙도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인민관을 자기 활동의 초석으로 삼고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중시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당의 제일차적요구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미 3년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세상에서 제

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조이지 않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그 누구를 만나시여도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바로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현실에 구현되어 최근년간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과 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침해진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만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열백번 변하여도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을 위해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돌이켜보면 창건후 지난 70년세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의 세계에서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왔다. 하나의 결정을 채택하거나 지시를 내려보낼 때에도 반드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토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있는것은 당의 일관한 립장이다.

이렇듯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의 정치아래 조국에서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제의 실시와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세상에 없는 인민적시책들이 빛나게 실시되게 되었다. 그리고 심심산골의 한 인간의 운명을 위해 국가적비상조치가 취해지고 한 청년의 마음속고충을 헤아려 풀어주는것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수없이 꽃피고있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오늘 조국인민들이 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부르며 진정을 다해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유럽을 다녀온 장애인 《예술인》들

청력장애자들도 무용을 할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긍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린다. 한것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영국과 프랑스에서 8명의 청력장애자들이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를 형상한 무용을 무대에 펼쳐 과문을 일으켰기때문이다.

영국 옥스포드 웰도니언극장에서 진행된 그들의 공연을 보고 옥스포드대학 교수 카밀라 렌야는 그들이 청력장애자들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청력장애자들이 집단적으로 무용종목에 출연하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평양장애자교류단으로 첫 유럽순회공연을 진행한 그들은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무용을 배우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협회서기장 차혁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것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사명이다, 그에 맞게 협회에서는 장애자들이 량만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과외소조형

식의 활동을 벌리고있다, 작품을 완성하는데 많은 품이 들지만 지도성원들의 노력과 친절성, 장애자들의 집중력과 단결력이 보장되면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훌륭한 작품을 내놓을수 있다. ...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용련습실에 들러보았다. 청력장애자들은 안무가의 몸짓과 손벽치는 손과 손의 폭과 속도에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작품의 리듬과 박자를 타고 무용형상을 숙련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안무가의 얼굴표정을 작품의 감정으로 받아안으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있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서도 동작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게 부단히 훈련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는 무용련습실과 잇닿은 다른 방들에서도 흘러나왔다. 그곳에서는 시력, 지체(팔다리와 몸)장애자들이 손공품이며 피아노 등을 배우고있었다.

지체장애자인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초급중학교 2학년학생 최진범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전에는 학교선생님들이 나를 업고 다니며 공부시켜주고있고 오후에는 이곳 선생님들이 노래를 배워주고있습니다.》





평양장애자교류단의 유럽순회공연의 일부

은혁을 비롯한 앞 못보는 장애자들은 공연에서 가요 《조선팔경가》를 손풍금독주로, 영국가극 《오페라의 유령》중에서 3편의 노래를 기악3중주로 손색없이 형상하여 관중의 재청을 받았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일하는 앞 못보는 김명숙(60살)은 자기의 제자와 함께 가요 《바다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하여 영국 BBC방송을 비롯한 그곳 보도계의 이목을 더욱 끌었다. 평양장애자교류단은 유럽순회공연에 15개의 종목을 무대에 올리었다. 영국의 런던과 케임브리지, 프랑스의 빠리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된 그들의 공연을 두고 관중은 이렇게 평하였다. 《지난해 12월 서방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조선이 장애자들을 멸살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

진범은 앞에서 언급된 장애자무용수들과 함께 교류단성원이 되어 지난 외국순회공연에서 독창 《고향의 봄》을 잘 불러 관람은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심금을 크게 울리었다. 그만큼 아닌 평양장원기술교류소 기능공학교 학생 강



는데 오늘 공연은 북조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인권소동>이 얼마나 허황한가를 보여주었다.》(영국조선친선협회 회원 존 오클리) 《나는 옥스포드와 런던에서 진행된 장애자예술 공연을 보지 못한 아쉬움으로 하여 케임브리지까지 따라와 공연을 보았다. 조선의 장애자보호정책이 훌륭하다.》(영국 런던시민 존 에버라드) 조선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다. 유럽을 다녀온 장애자《예술인》들이 이것을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조에서 1등을 하고 시상대에 오른 일군 (왼쪽에서 첫번째)

체육을 대중화한 결실

지난 2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당시 배구, 룡구, 탁구, 태권도, 바줄당기기 등 9개 종목을 가지고 조별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 3조에서는 조선금강총회사가 영예의 1등을 쟁취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는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데 대하여 소개하고 싶어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우리에게 총사장 차동수는 말하였다.

《우리가 이번에 거둔 성과의 비결은 체육을 일군들부터 대중체육활동에 앞장선다.

대중화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지난 시기 총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선수본위, 승산종목에만 국한시켜 진행하다보니 성과를 기대할수 없었다. 그러다가 체육열풍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관안에서도 대중체육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 과정에 일군들의 체육열의가 높아지고 집단의 단합도 강화되었으며 누구나 선수 못지 않게 체육기술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우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종목의 책임자를 회사의 일

민족무도인 태권도보급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



군들로 임명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총회사의 특성에 맞게 세워진 주, 월별 체육활동계획에 따라 체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간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총회사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 태권도, 대중물동체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었으며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탁구, 룡구, 배구경기는 기관안에 체육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여러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기들은 참으로 볼만하였다. 응원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며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속에서 배구는 박수일의 조가 이기고 바줄당기기는 안춘식의 조, 탁구는 차동수의 조가 각각 이겼다.

바줄당기기경기에서 이긴 자랑을 안고 안춘식은 어제날 바줄당기기에서는 소학교 1학년생이나 다름없던 자기 기관일군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것이 기쁘다고 하면서 다음번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얼마든지 우승할 자신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확신에 찬 말은 부원 신선미를 통해서도 들을수 있었다. 그는 지난 시기 자기는 체육을 등한시켰지만 이제는 체육활동을 잘하여 탁구와 태권도에서 기관선수로서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볼 결심이라고 말하였다. 그런가 하면 60대의 나이에 태권도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종목에 선수로 참가한다는 유성락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부를 때에도 마음이 한결 젊어지지만 체육활동에 몸을 잠그니

휴식을 리용하여 부서별 배구경기가 진행된다.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녀자배구경기에서 1등을 쟁취한 녀성일군들

청춘의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체육은 정말 젊음을 되찾아주는 명약이라고 하였다.

누구를 만나보아도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그들의 모습은 나라의 대중체육정책의 정당성을 현실로 보여주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상식 우리 나라에서 발견될 가장 오랜 저수지터-《벽골제》

우리 선조들은 원시시대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삼국시기에 와서는 관개용저수지까지 만들어놓고 논물을 해결하였다.

그 대표적인 저수지의 하나가 전라북도 김제군에 있던 《벽골제》이다.

백제는 착취원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저수지를 건설하고 제방을 쌓는 일을 추진하였다. 330년에 여러 고을에 명령하여 강하천들에 제방을 쌓게 하였으며 《벽골제》와 같은 큰 저수지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벽골제》는 그 폭의 길이가 1 800보에 달하였다. 이 저수지의 건설에는 전주를 비롯한 7개의 고장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부역로동의 명목으로 장기간 동원되었다. 그 후 이 저수지는 15세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되었다.

《김제읍지》에 의하면 《벽골제》의 주위둘레는 77 406보, 길이가 843척, 제방폭의 밑너비는 70척, 윗너비는 30척, 높이는 17척이나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5개의 수문이 있었는데 그 너비는 각각 13척이었다. 이 저수지가 관개하는 토지면적은 무려 9 840결 95부나 되었다. 이처럼 《벽골제》가 관개하는 토지면적은 당시로서는 방대할것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신라에서도 백제보다 1세기 늦은 429년에 인공저수지 《시제》를 건설하였다.

* * *

노래 《바다만풍가》에 이끌려

이제는 우리가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온지 300회가 넘는다. 그동안 우리의 고향소식란에는 조국땅 곳곳의 많은 모습이 실리었다. 이번호에는 어느 고장을 선택할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얼마전 중국 길림성에서 사는 조건호동포의 고향인 함경남도 신포시의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갈매기들이 너울너울 춤추는 바다우에서 전마선을 탄 너인들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포구에

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울리고 선창에는 물고기가 가득 넘쳐 웃음도 절로 난다는 노래 《바다만풍가》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양식공들이었다. 그들가운데는 도소재지인 함흥시에서 급양부문의 요리사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온 처녀도 있었다.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온 처녀, 우리 마음마저 흥그려워졌다.

우리와 만난 기업소기사장 리철호가 그에 대해 말해주며 이렇게 계속하였다.

《해방전에는 배군들이 물고기를 잡아오면 일제가 전부 약탈해가서 어물시장에서는 정어리외에 다른 물고기들을 구경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먹는것은 사자밥이요, 잡자리는 칠성판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우리 고장이 천지개벽했습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해안가에 들어앉은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둘러보았다. 너인들이 부른 노래에서처럼 포구에서는 트랄선 12호가 하선작업을 끝내기 바쁘게 1240호가 물면에 깊숙이 박힌 배머리를 돌리며 부두에 다가들었다. 이어 부두에는 물고기들이 련방 더미로 쌓아지고 한쪽에서는 세척, 급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물고기들이 대형랭동창고들과 통줄임생산기지에로 운반되어갔다.

볼수록 흐뭇한 광경이었다. 기업소에서는 해마다 출어일수를 270일이상 보장한다니 그만큼 주민들의 식탁우에는 사철 신선한 물고기가 오를것이다. 그 식생활이 풍성해져서인가 바다가에서 바라보는 주민지구도 멋이 있었다.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며 그를 따라 량옆으로 들어앉은 다층살림집들, 편의봉사시설을 그쁘히 갖춘 은덕원이며 문화회관과 학생소년회관...

그 옛날 장마때마다 물란리가 일어나 온 마을을 씻어내린다고 하여 시신개 또는 신개로 그후 신포로 불리운 이 고장이었다. 전쟁시기(1950. 6. 25.-1953. 7. 27.)에는 미제의 폭격과 함포사격에 의해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던 이곳이었다.

리철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신포땅을 거둬 찾으시여 이곳을 수산도시로 꾸리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



신포수산대학에서

였다, 때로는 도시건설형성안도 지도해주시었고 때로는 노동자들의 기름물은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생활형편을 보살펴주시었다, 그이의 뜻을 받들고 시안의 주민들이 고향을 일신시키는데 떨쳐나섰다,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배무이와 어구의 현대화, 살림집건설,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 동골천 2호부터 9호에 이르는 중소형발전소건설, 종이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과 버섯재배장 등의 건설... 최근년간에는 해암1, 2동, 어항동일대에 아동공원과 뽀트장을 훌륭히 꾸리었다, 올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수산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대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일



후대들을 위한 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뭘 계속 쓰나요?》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고철훈의 어린 손녀는 저녁늦도록 서재에서 글을 쓰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고철훈

그러면 고철훈은 손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아버지는 아직 <숙제>를 하지 못했단다.》라고 말해준다.

어제저녁에도 손녀애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제도 밤새껏 글을 썼는데 오늘도 다 못했나요?》

《할아버지의 <숙제>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숙제란다.》

할아버지는 손녀애의 불을 다 독여주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손녀애는 머루알같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듯 벽면에 걸린 후보원사증서에 눈길을 준다. 아마도 지난해 7월 문학분야의 후보원사로 된 할아버지를 온 가족이 축하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다. ...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전 고철훈의 집을 찾았을 때 며느리에게서 들은 말이다.

우리가 그의 일터와 가정에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실지 그는 주체문학연구분야에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았다. 하지만 그는 그 높이에선 아랑곳없이 손녀애에게 말한바와 같이 《숙제》를 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의 학술연구로정은 어언 40여년이라는 세월로 이어져있다.

그 나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적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해설선전하고 주체적문예이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론증하는데 바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당시)를 졸업하고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당시) 연구사로 일하면서 그는 주체적문예이론에 대한 매혹의 감정과 고마운 조국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함께 간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간직된 것이 아니었다. 저 멀리 일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 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조국에서 8남매형제모두가 무료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대학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축적된 것이었다.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커갈수록 그의 보답의 마음도 커만 갔다.

하기에 그는 《문학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비롯하여 주체적문예이론에 관한 수많은 도서를 집필하고 수백건의 소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조선문학사의 방대한 내용을 일목료연하게 정리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모두 3권으로 된 《조선문학작품편람》과 우리 나라 문학예술분야의 첫 다매체전자사전의 편찬사업에서 그는 주편찬자로 활약하였다.

주렁저감을 알리는 소리, 수산도시에 울리는 노래 《바다만풍가》를 더 높이 전해가는 이 고장사람들의 긍지높은 노래소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노래에 이끌려 함흥에서 왔다는 양식공 처녀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펴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이곳에 마음이 끌리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조선에서 처음으로 세계문예사조의 연구에 대한 교육과목도 그가 개척하였다. 세계적범위에서 력사에 존재한 수많은 문예사조들의 형태와 내용을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분류하고 서술하였으며 그것을 하나의 교육과목으로 발전시켜 주체적문예교육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였던 것이다.

그가 집필한 도서들은 많은 대학들에서 교재로 리용되고있으며 내용의 주체성과 논리성, 풍부성과 교육학적가치에 있어서 훌륭한 문예교육교재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다.

그는 주체93(2004)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국제적인 학술토론회에도 참가하여 날로 발전하는 조선문학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뚜렷이 보여주었다.

일본땅에서 조선말보다 일본말을 더 많이 들으며 살아야 했던 동포소년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보람차고 성공적인 문학연구의 수십년로정을 걸어오며 주체문학리론연구의 권위자, 훌륭한 교육자, 예리한 평론가라는 학계와 사회계의 쉽지 않은 평판을 받고있다.

그는 주체91(2002)년에 박사학위를, 주체97(2008)년에 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예학학회 회장, 국가학위학직심의위원회



연구사들과 함께

문학분과 위원장으로도 사업하고 처럼 의문을 풀지 못하는 그의 《숙제》는 끝이 없다.

일흔살을 눈앞에 두고있지만 로학자는 오늘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예이론도서집필에 자기의 모든 정열과 재능을 깡그리 쏟아붓고있다.

후대들을 위한 일, 조국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는 그는.

정말이지 손녀애가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고철훈의 가족



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신포시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가정주부들을 위해 이동판매원들이 아침마다 물고기가공식품을 싣고 딸랑딸랑 울린다는 종소리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그 종소리는 우리에게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고향을 감싸안고있지만 바다가 주는 삶의 향기는 시대마다 다름을 깨우쳐주는듯 싶었다. 그 종소리는 절세위인의 관심속에, 제 힘을 자각한 주민들의 노력끝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저감을 알리는 소리, 수산도시에 울리는 노래 《바다만풍가》를 더 높이 전해가는 이 고장사람들의 긍지높은 노래소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노래에 이끌려 함흥에서 왔다는 양식공 처녀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펴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이곳에 마음이 끌리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흥년엔 아이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지난날에: 없거나 귀해지면 더 욕심을 쓰게 됨을 이르던 말.
-아홉 가진자 하나 가진자 부러워한다
많은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안주어서 못 받지 손 작아서 못 받으랴
무엇이나 주는대로 다 받는 욕심스

조선속담 (리기)

러운 행동을 두고 이르는 말.
-욕심이 땅보다 두렵다
욕심이 지독하게 많음을 이르는 말.
-공술 한잔 보고 십리 간다
제 돈 안들이고 거저 생기는것이 라면 아무것이나 좋아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군불에 밥짓기(약히기)

어떠한 일에 덧붙여서 일을 쉽게 함을 비겨이르는 말.
-남의 떡으로(애) 설 쉰다
자기의 노력과 자금은 들이지 않고 남의 덕으로 리익을 보거나 성과를 거둠을 이르는 말.
-뒤구멍으로 호박씨 깬다
무슨 일을 어물쩍하게 해치우는 행동 또는 남몰래 자기의 리속을 채울 때 이르는 말.
* * *



중국 심양시 화평구 남경동 80구 2호동 1-4-2 박정옥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동생, 우리가 평양에서 만나 회포를 나눌것이 어제런 듯 눈에 삼삼한데 벌써 한해가 되어오는구만.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몹시 바쁠테지. ...

영숙, 영길, 영옥이도 별고 없이 잘 지내고있으리라고 믿소.

이번에 잡지 《금수강산》을 통해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소. 그래 펜을 들고보니 평양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다시 오겠다고 울먹이던 동생의 모습이 가슴저리게 안겨오더구만.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것이 혈육의 정인가보네. 그래 동생이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회억에 잠기는 때가 많네. 그러느라면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살아온 동생의 한생이 돌이켜지더구만.

해마다 2월과 4월이 오면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리며 조국땅을 밟았고 어떻게 하나 조국에 보탬을 줄 애국의 마음으로 살아온 동생이 아닌가.

솔직한 말로 전에는 자주 조국을 방문하는 동생을 두고 단순히 혈육과 조국에 대한 그리운 감정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네. 그러나 그 걸음이 애국과 잇닿은 큰 걸음임을 이언니는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알게 되었구만.

혈육들에 앞서 조국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보태기 위해 애쓰는 동생의 모습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컸네.

언제 한번 조국과 자신을 떼여본적이 없는 동생이었기에 나이가 많고 불편한 몸인데도 여전히 애국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난 그런 동생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하고있소.

그러한 자랑을 안고 조국에

있는 나와 나의 가족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네.

내 비록 년로한 몸이지만 마을을 보다 잘 꾸리고 부강조국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살아가고있네. 우리 인민반에서는 얼마전 마을앞에 나무를 심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놓는것을 비롯해서 가정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기 위한 일을 하였소. 인민반 주민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달라붙었는데 우리 가정이 라고 뒤질수가 있어야지. 그때 온 가정의 마음을 합쳐 했더니 마을사람들의 칭찬이 이만저만 아니구만.

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인민반사업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도록 하겠소.

동생, 조카들인 순희와 영희 그리고 출가한 미향이와 사위도 몸건강히 잘 있네.

지난 4월 증손자의 돌생일을 차려주었는데 그날 온 집안이 다 모였댔소.

동생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애들도 동생생각을 하며 앞으로 와서 보면 기뻐하라고 멋있게 돌사진을 찍었소.

동생, 할 말은 많으나 이만 끝맺으려 하니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에 특별히 류의해주오.

그럼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평양시 락랑구역 락랑1동 26인민반 김혜영으로부터



따르는 마음, 쓰기를 지성



《길림육문중학교모형》

국가선물관에는 조국인민들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린 지성품들이 수많은 전시되어있다.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국제태권도련맹, 《세계평화련합》 사무총장 박상권, 재중동포 김정옥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올린 한점, 한점의 지성품들에는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품모로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그대로 어려있다.

옥돌조각상 《조선지도에 모신 위대한 령도자

공예 《선군의 북소리 세계만방에 울려 퍼진다》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유화 《선군태양 천하를 비친다》, 보석화 《정일봉》, 옥돌공예 《천하 제일장검》, 《세필의 준마》, 《매화와 까치》, 가죽공예 《코끼리》, 《말》, 금도금공예 《뚝배》, 돌공예 《조선은 세계의 중심》, 동공예 《태양마차》, 종이접이 《백조》, 예로부터 건 강장수와 나라의 번영, 인민의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는 《경태라꽃병》을 비롯하여 지성품의 종류와 가지수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가 깃든 길림땅에서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길림육문중학교모형》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옥돌공예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리워진다



세월이 갈수록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짙어간다. 더우기 조국을 방문하여 유서깊은 만경대 고향집을 찾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가 어려와 눈곱이 젖어드느것을 어쩔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수령님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힌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조국땅에 인민이 주인된 세상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하기에 일찌기 14살 어린 나이에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경대 고향집에 그대로 다 어려있는것 같다.

정말 우리 수령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겨레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지난 기간 우리는 길림에서 회고음악회도 성대히 조직하고 《백두-한나》잡지도 편집발행하면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동포들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지금 나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짝 차있다.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적극 바쳐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한길수

해외동포들의 규탄의 목소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모험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광란적으로 벌여놓고있다.

해외동포들은 담화와 성명 등을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을 날날이 발가놓고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죄규탄하며 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고있다.

일본 간포지방의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은 항의단을 뜻고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하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그만두고 북남관계개선에 성실히 나서라!》, 《7. 4공동성명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리행에 나서라!》 등의 현수막과 프랑카드를 들고 지난 70년동안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썩워온 미제침략자들과 미국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괴뢰패당을 치솟는 분노로 규탄하였다.

총련 도료도본부 위원장 황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내외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에 달하는 괴뢰군병력 지어 추종국가군대까지 동원되어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강행된 합동군사연습은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우리는 적들의 책동이 우

심해질수록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높이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릴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벌려놓은 침략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썩우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 락인한다.

조선전쟁발발당시 미제는 괴뢰군을 내몰아 38° 선일대에서 끊임없는 무장도발을 벌리다가 그대로 공화국에 대한 전면전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놓고볼때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해마다 그칠사이없이 벌리는 대규모 전쟁연습들의 종착점이 다름아닌 제2의 조선전쟁의 서막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리채선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년례적》, 《방어적》훈련이 아니라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공화국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남조선당국에 조선반도에서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그만두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대범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합동군사연습으로 도전해나섰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며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 전쟁광신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도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역에서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흐르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전체 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한 방어수단뿐아니라 적의 본거지를 순간에 불마당질해버릴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이 있다. 우리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어깨걸고 침략자들을 맞받아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이들뿐아니라 로씨야와 중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해외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공명정대한 방안과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해나선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전집〉의 유훈이 실현된 모습》, 《명주이불》, 《물고기화석》, 《장군옥바위》는 《세계평화연합》 사무총장 박상권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지성품들이다.

세계적으로 매우 진귀하고 무게가 약 10t에 달하는 칠색령룡한 옥바위를 마련한 그는 하얀 장갑을 끼고 자기가 직접 바위겉면이 마치 광택제를 칠한것처럼 빛날 때까지 바위를 연마하였다. 그 지성품이 바로 《장군옥바위》이다.

박상권동포는 《이 옥바위는 장군님곁에 있어야 더 빛이 나고 영원히 사랑받을수 있을것이다. 마치 이 옥바위는 장군님곁으로 가는 날을 80만년이나 기다린듯싶다. 장군님의 국가와 인민에 대한 공적이 이 보석바위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백두산 절세위인들이 세워주고 빛내여주신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휘황찬란하리라는 굳은 확신에 넘쳐있는 중국 훈춘시 휘범무역유한공사 총경리 김정옥은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고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형상한 옥돌공예 《백두산의 새 호랑이 지구돌린다》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어왔다.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로길남이 올린 도자공예 《하늘을 나는 천사》는 전설속의 천사가 힘차게 날고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조국의 21세기 병진로선의 승리를 보여주고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고대춘, 석미란은 《도자기차그릇일식》을,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 주영일은 공예 《선군의 북소리 세계만방에 울려 퍼진다》를, 까자흐스탄 《아리랑》가무단 단장 리춘화는 《나무그릇일식》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살고있는 리림은 박제품 《줄범》을, 미국 스크래피영화회사 제작자 리영진은 《롱구공》과 《선수기념카드》를 마련하는데 자기들의 성의를 다하였다.

그뿐아니라 해외동포들이 올린 수많은 지성품들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러따르는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반영하고있다.

진정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국보로 빛나는 지성품들은 몸은 비록 대양과 대륙을 넘어 이역만리에 떨어져살아도 민족의 태양, 위대한 선군령장들을 모시고 받드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10)

- 금강산지구 -

이번호에서는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과 그 지구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금강산은 우리 나라 조선동해기슭의 중부인 강원도의 고성군과 금강군의 넓은 지역(남북으로 60km, 동서로 40km, 총면적 530km²)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이천봉우리로 이루어진 금강산은 봄철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릅니다.

금강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1 639m)이며 금강산은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식물자원 또한 풍부하여 금강산에는 2 260여종의 식물과 38종의 짐승류, 130종의 새류, 9종의 파충류와 10종의 양서류가 살고있으며 년평균기온은 11℃, 년평균강수량은 1 580mm입니다.

외금강은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뻗어나간 련봉들과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해금강사이를 포괄하는 명승지역입니다.

삼일포



외금강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온정리를 중심으로 11개의 명승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구룡연구역은 온정리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여기에 조선의 3대명폭포의 하나로 이름난 구룡폭포와 구룡연이 있습니다.

구룡폭포는 높이가 74m인 장쾌한 폭포로서 폭포밑에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구룡연이라는 큰 담소가 있습니다.

구룡폭포의 옷골짜기에 놓여있는 8개의 담소를 상팔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먼 옛날 하늘나라 8선녀가 이곳의 경치가 하도 아름답고 물이 맑아 하늘에서 내려와 미역을 감았다는 금강산8선녀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삼선암의 정성대에 올랐다가 안심대를 지나 천선대에 이르면 만물의 신기한 모양을 한자리에서 다 감상할수 있는 만물상구역이 펼쳐집니다.

금강산려관에서 서쪽으로 3. 5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정봉은 사방이 탁 트이여 고성읍, 온정리, 그앞에 펼쳐진 바다는 물론 비로봉이며 금강산의 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습니다.



삼선암

내금강은 금강산 서부지구에 펼쳐진 명승지역으로서 온정리에서 50km 떨어진 금강군 내강리에 있습니다.

내금강은 계곡미를 자랑하는 만폭구역을 비롯하여 만천, 백운대, 명경대, 망군대, 비로봉, 태상, 구성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금강지역에는 표훈사 등 력사유적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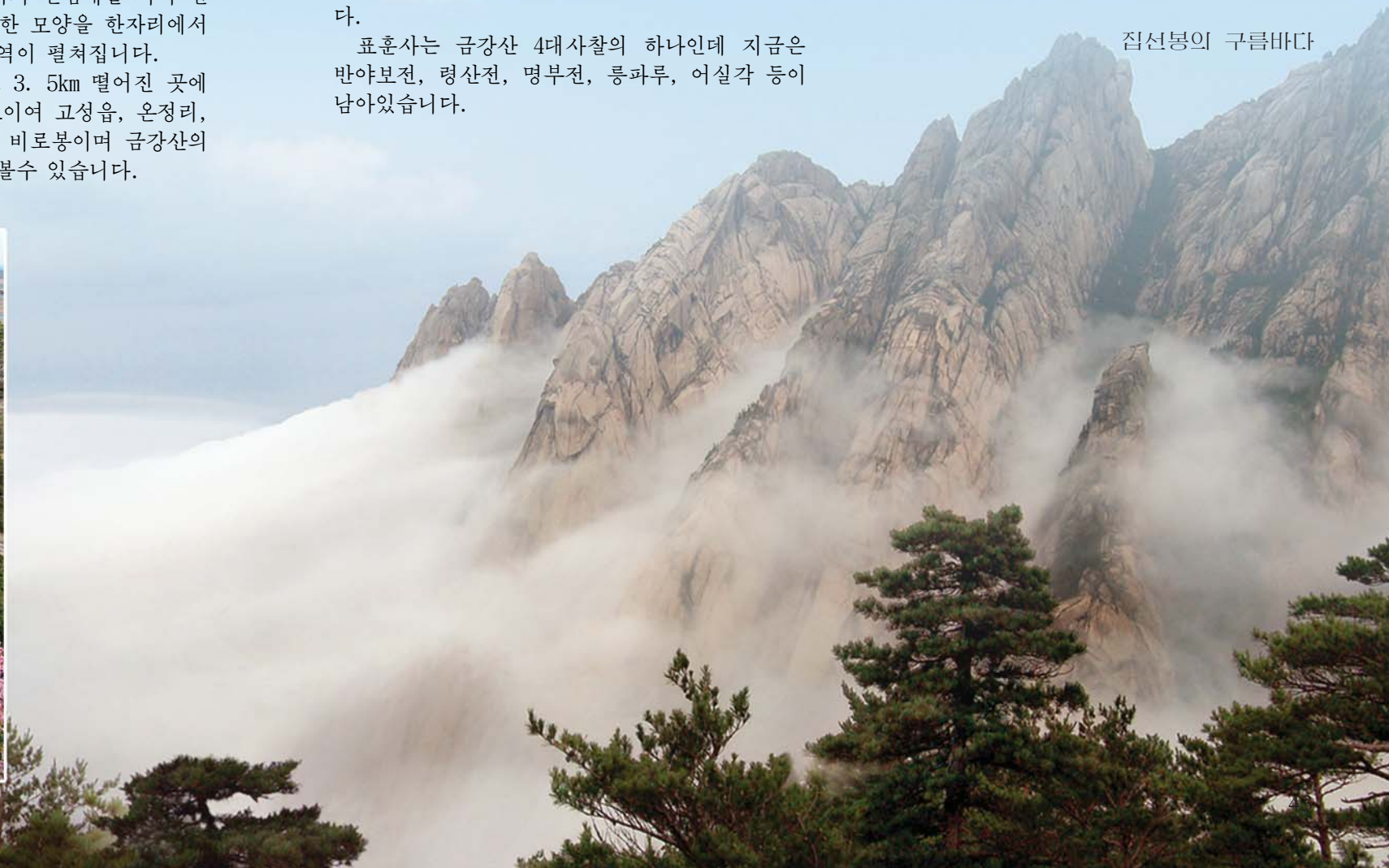
표훈사는 금강산 4대사찰의 하나인데 지금은 반야보전, 령산전, 명부전, 룡파루, 어실각 등이 남아있습니다.



총석정

정양사는 표훈사뒤에 있는 방광대 산허리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한 사찰로서 금강산의 정맥에 있고 제일 양지바른 곳에 지은 사찰이라 하여 정양사라고 합니다. 정양사의 약사전은 조선봉건왕조 후기에 다시 세운 6각지붕으로 된 특이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하나의 대들보도 건너대지 않고 지붕들을 짜올린 솜씨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집선봉의 구름바다



수 없으며 화려한 단청까지 입힌 천정은 마치 꽃밭을 방불케 합니다. 정양사에는 후기신라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적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덕암은 내금강 만폭구역 분설담옆에 있는 건축술이 매우 뛰어난 암자인데 천길벼랑에 매달려 있는듯 한 그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냅니다.

묘길상은 내금강 백운대구역 미륵대절벽에 새긴 부처조각상으로서 조선의 돌부처 가운데서 제일 크고 잘된 대표작의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면서도 섬세한 얼굴과 울방자를 틀고앉은 부처의 생동한 모습은 우리 인민의 예술적재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이는 15m, 너비는 9.4m입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바다경치로 이채를 띠는 해금강은 삼일포구역, 총석정구역, 해금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명승지구에서와 달리 그림같은 바다가경치와 수정같이 맑은 바다물결의 만물상도 보게 되며 해수욕과 물고기잡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삼일포는 온정리에서 동쪽으로 12km 가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호수인데 아득한 옛적에 왕이 하루 놀려고 왔다가 호수경치에 심취되어 3일을 놀고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어 그 이름도 삼일포라고 합니다. 호수의 물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속까지도 비쳐지는듯 한 맑은 물결과 호수를 둘러싼 바위산들, 울창한 수림 등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합니다.

와우섬, 사선정리, 단서암, 무선대가 있고 둘레에는 장군대, 봉래대, 련화대, 금강문 등이 있는 호수에서는 배놀이도 할수 있고 호수주위에 둘러싸인 바위산들을 련결하는 탐승길을 따라 유람도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할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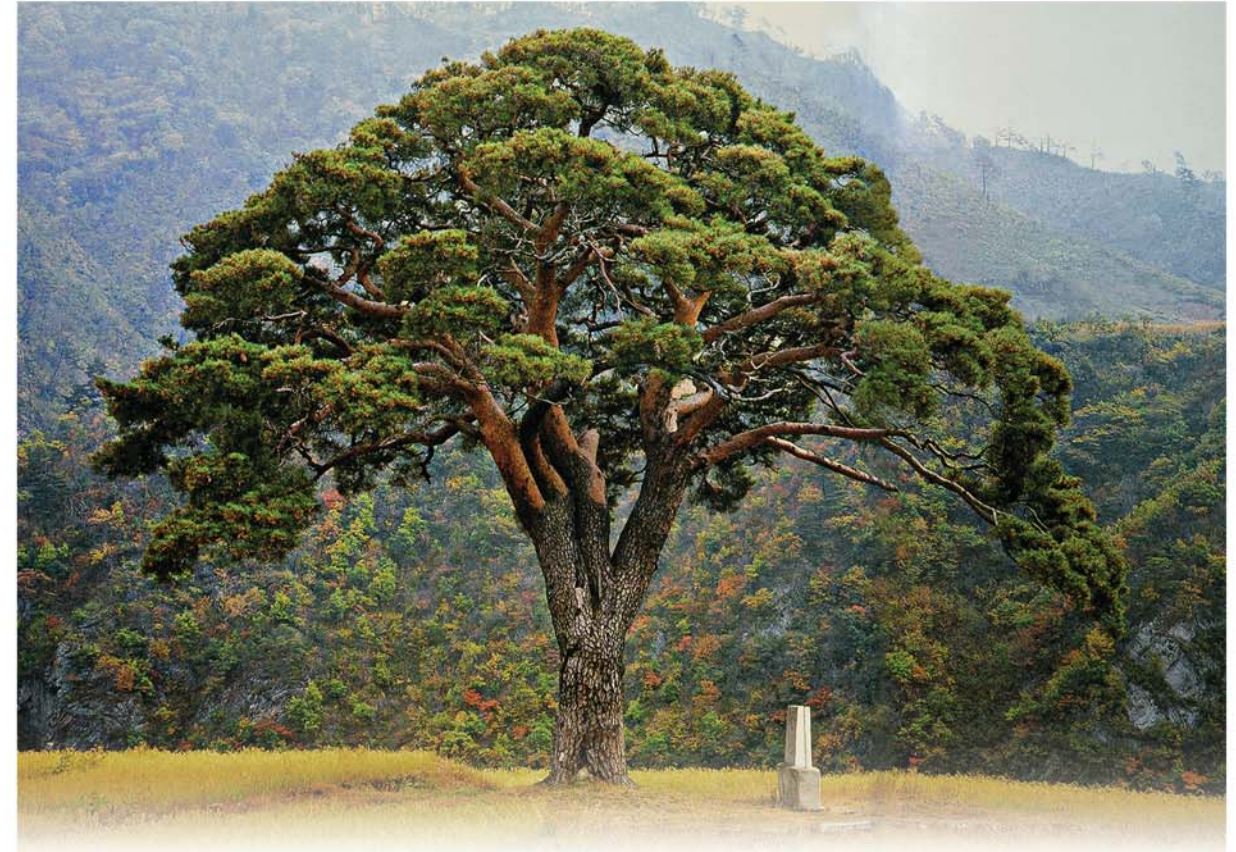
기이하게 생긴 수많은 돌기둥들로 동해바다를 눈부시게 장식하고있는 총석정은 금강산의 기암줄기가 바다에 뛰어들듯 수정같은 돌기둥들을 바다위에 펼쳐놓아 절경을 이루고있습니다. 돌기둥들은 와총(누워있는 돌기둥), 좌총(앉아있는 돌기둥), 립총(곧바로 서있는 돌기둥)으로 갈라보는데 그가운데서 제일 기묘한것은 립총입니다. 총석정의 경치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인 경치로서 밤경치는 그야말로 신비롭습니다.

금강산지구에는 또한 라돈천인 금강산온천이 있는데 심장병,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온천의 온도는 37~44℃로서 병치료에도 좋지만 금강산탐승길에서 쌓인 피로를 푸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금강산호텔은 산세 아름다운 외금강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호텔로서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호텔입니다.

금강산지구에 대한 소개는 이만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에서는 문화관광, 체육관광, 비행기에 호가관광, 자전거관광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관광 일정들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조선관광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과 민족별에 관계없이 훌륭한 관광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을 방문하고 즐거운 관광의 나날을 보낼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민족의 기상이 어린 소나무

눈속에서도 그 푸름을 변치 않는 소나무.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소나무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으며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장중하고 굳세며 우아한 자태를 흐트리지 않는 소나무의 모습을 시와 노래에 즐겨 담아왔다.

개성의 송악산에 소나무를 심어 푸르게 하여 장차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는 고려태조 왕건의 건국설화와 고려시기의 수도 개경은 《송도》로, 개경의 진산은 《송악산》으로 소나무와 결부시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민들이 소나무를 심어가꾸며 얼마나 사랑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 이름난 의병장이었던 사명당이 《푸른 소나무》라는 시에 담은 소나무에 매혹된 마음을 통해서도 그 일단을 엿볼수 있다.

자연의 거의 모든 식물들과는 달리 혹한의 겨울에도 푸른 잎을 깨끗이 펼치는 소나무에는 정의의 위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담겨져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20세기 전반기에 우리 인민들은 소나무의 역센 기상과 같은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길에 나섰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와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긴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사람들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지조와 절개가 굳은 사람을 존경하고 내세웠으며 백옥과 푸른 소나무, 참대를 그 상징으로 삼았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바늘잎키나무인 소나무는 조선의 북부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높이 800m아래의 넓은 지역에서 자란다. 토양에 대한 요구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햇빛에 대한 요구성은 매우 높다.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이다.

* * *



경제무역관계의 확대를 보여준 계기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로씨야, 말레

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스위스 등 10여개 나라의 300여개 회사들이 전람회에 참가하였다. 전람회에 전자, 기계, 금

속, 건재, 운수, 식료, 일용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고 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해온지도 이제 17년이나 되지만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제상품전람회에는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사실 고국에서 진행되는 상품전람회에 대하여 말도 많이 들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

왔고 참가도 하고싶었지만 이일 저일로 해서 미루어왔다. 이번에 진행된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해보니 고국에서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적극화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그것은 전람회에 참가하는 나라수와 기업들의 규모와 제품들을 보고도 느낄수 있는것이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각종

태양빛전지판, 레드등, 선풍기, 손전화충전기, 전지, 밥가마류 등을 출품하였다. 제품들은 대부분 태양빛을 리용하여 쓸수 있게 되어있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다. 솔직히 말하여 전람회참가가 처음이다보니 제품들에 대한 고국인민들의 기호와 수요 등을 잘 알수 없어 견본만 가지고 왔다. 그런데 고국인민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대단하였다.

지금 고국에서는 자연에너지를 개발하고 적극 리용하기 위

우리 나라의 전기 및 전자제품들과 각종 타일, 기계설비들은 국제적경쟁력을 가진 제품들로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와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해나갈 의지들을 표명하였다.

전람회기간 참가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우리 나라가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여러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교류와 제품들에 대한 무역거래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람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한 사업이 국가적인 관심과 지도밑에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자연에너지를 생활에 리용하는것은 고국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나는 앞으로 고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의의를 가지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다음번 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생각이다.

그리고 고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더욱 폭넓고 활발하게 진행해나갈 결심이다.

중국 단둥 영주수출입유한공사 총경리 남춘연

발해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세상에 해동성국으로 널리 알려졌던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200여년간 존재한 우리 나라 중세봉건국가들중의 하나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나라의 령역을 확대하고 대외적권위를 높이면서 보다 정연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와 질서를 확립하였다.

국왕은 전체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에 군림한 최고통치자로서 대왕, 황상, 성왕 등의 호칭으로 불리웠다. 발해에서는 독자적인 년호를 사용하고 제후(계루왕, 허왕)들을 두었으며 황제국가에만 있는 최고의 명예관직인 3사3공제도를 적용하면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발해의 중앙통치기구에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정당성산하의 총부, 인부, 의부, 지부, 레부, 신부로 이루어진 6부가 있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의 중앙집권적통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관청들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일정한 관직과 벼슬을 가진 장관들과 관료, 관리들을 두었다.

발해는 나라의 넓은 지역과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치기구도 갖추었다.

발해는 고구려의 부수도와 5부설치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나라의 중요거점들에 방위에 따라 1개의 수도(상경)와 4개의 부

수도(중경, 서경, 동경, 남경)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전국을 15개의 부로 구분하고 그가운데서 룡천부, 현덕부, 룡원부, 남해부, 압록부의 5개 부에는 5경의 중심지를 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아래에는 주가 있었으며 그 수는 중앙에 직속된 3개의 주(영주, 동주, 속주)를 포함하여 62개였다. 또 주아래에 백수십개의 현을 두고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이라는 관직을 가진 지방관료들을 배치하였다. 지방통치단위에는 부곡, 촌 등도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지방하급관리인 향리들이 관할하였다.

발해는 나라의 일부 지역들에 자치적성격을 가진 후국과 속령을 두었다. 실례로 후국왕은 발해대왕의 아래에 있던 왕급존재로서 지위가 특별히 높았는데 그는 후국관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자치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속령들에 대해서는 중앙관료들을 직접 파견하여 감독통제하는것과 함께 이 지역우두머리들을 번장으로 임명하고 자치에 맡겨두는 형식으로 변방지역을 통치하였다.

발해는 봉건관료들의 층위를 규정하며 인민들에 대한 신분적예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벼슬등급제도와 훈급제, 작위제도, 옷차림제도 등 봉건적계층제도를 세분화하여 실시하였다.

발해는 건국 초기에 벌써 수십만에 달하는 상비무력과 정연한 군사행정기관, 군사지휘체제를 갖추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었으며 법률적통제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발해는 정연한 국가통치체제와 질서를 갖추고 나라의 령토안정과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고구려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높이 떨치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유모아 떨어진 껌 찾기

한 녀성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느라 집중하고있는데 옆에 앉았던 남자가 옆드려 바닥에서 무엇을 찾고있었다.

녀성이 낮은 목소리로 《무엇을 찾습니까?》 하고 물었다. 《씹던 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껌? 떨어진 껌은 더러워졌으니 내가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니 조용하세요. 영화를 보는데 지장을 주지 말고.》 하면서 녀인이 껌

하나를 주었다. 《그런데 그 껌에 내 이발이 붙어있어 그렇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 * *



밥짓기



장담그기



두부얇기



떡치기



김치담그기



농반

참판기

반반년민족사에 이루어진 풍속을 더듬어 (2)

-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아서 -

우리가 강사를 따라 들어선 다음호실에서는 선조들이 인류 발생의 첫 시기부터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식생활풍습을 보여 주고있었습니다.

《인류발생의 첫 시기 원시인 들은 열매나 풀, 짐승, 물고기 등을 채집하거나 사냥하여 날것

으로 먹었고 구석기시대 중기부 터 불을 리용하여 음식재료를 익혀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 자들은 라선시 서포항유적 신 석기시대층에서 나온 짐승의 뼈 로 만든 숟가락을 비롯하여 여 러 원시유적들에서 나온 갈돌과

돌공이, 토기잔과 토기바리, 청 동시루와 가마, 숟가락과 저가 락, 토기대접과 잔, 보시기, 굽 접시 등의 유물들을 돌아보았 습니다.

고조선시기에 이어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와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식

생활은 더욱 발전하였는데 그것 은 고국원왕(고구려시기의 왕) 룡의 벽화와 다양한 민족음식의 우수성을 찬양하여 쓴 도서, 민 족음식의 종류를 보여주는 도 표를 통하여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음식은 크게 주식 물, 부식물, 당과, 음료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주식에는 밥, 떡, 국수, 죽, 지짐 등이 있고 부식물에는 장, 김치, 두부 등이 있으며 과줄, 약과, 다식, 숙실과, 정과, 엿 등 당과와 술, 차와 수정과, 화 채, 미시(닭은 난알가루를 사랑 이나 꿀물에 탄 음료), 식혜 등 음료가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떡을 치고 국수 를 누르며 장과 김치를 담그고

두부를 얇는 풍습을 보여주는 그림도 보고 16세기에 벌써 김 치종류가 30여가지나 되었다는 사실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 며 참관길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전시대에서는 상차림과 식사례절에 대하여 보여주고있 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상차 림에는 음식에 따라 밥상, 국 수상, 술상 등이 있고 몇사람이 식사하는가에 따라 독상, 겸상, 두리반차림 등이 있습니다. 여 기에서 특이한것은 반상기였습 니다. 반상기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차리는 상인데 여기에는 3첩(뚜껑있는 반찬그릇), 5첩, 7첩, 9첩, 12첩 반상기가 있습 니다. 국, 김치 등 일상 음식은 첩에 포함시키지 않습 니다.

지방별특산음식과 명 절음식들도 참관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지방별특산음식으로는 평양 의 평양랭면과 평양온반, 대동 강송어국과 룡두지짐, 함경도의 가재미식혜와 농마국수, 량강도의 언감자음식, 자강도의 느릅 쟁이국수, 황해도의 해주비빔 밥, 강원도의 총떡(메밀가루를 물에 개어 지짐판에 부치고 거 기에 고기, 버섯, 오이같은것 을 가늘게 채쳐서 볶은것을 넣 고 돌돌 말아서 초장에 찍어먹 는 음식), 개성의 추어탕과 보 싹김치, 경기도의 설렁탕, 충청 도의 깍두기, 전라도의 고추장 과 죽순탕, 경상도의 소고기매 운탕, 제주도의 새끼돼지회 등 이 이었습니다.

명절음식에는 설명절의 떡국 과 찰떡, 설기떡, 엿과 강정, 약과, 수정과, 식혜가, 정월대 보름의 복쌈, 오탁밥, 마른나물 9가지반찬, 엿 등이, 한가위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장을 보여주는 대형그림



장에서 리용하던 지울, 되박



조선봉건왕조시기 리용 하던 돈지갑, 주판, 돈



의 햇곡식으로 지은 송편, 쉬움떡, 찰떡, 밤단자 등이 있는데 평양지방에서는 한가위날음식으로 노치가, 개성지방에서는 토란국, 토란단자가 유명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음식재료를 가지고 조선사람의 체질과 구미, 기호에 맞는 독특한 민족 음식을 창조하고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민족적 전통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보며 참관자들은 다음호실에 들어섰습니다.

호실에서는 교역풍습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었습니다. 교역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원시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돌돈》과 바꾸는 그림이 호실에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집집승이나 짐승가족 또는 쌀이나 조개껍질같은것이 일반적등가물로 리용되다가 점차 《돌돈》이 리용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습니다.

고대시기에 들어와 사람들사이의 물건교환은 점차 확대발전되어 나라들사이의 상업무역 거래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조선, 진국, 부여 등 고대 국가들에 이어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 고려시기에도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고려시기의 대외무역은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형그림과 제일 많이 리용된 화폐인 동전, 시장에서 리용되던 주판과 저울, 퇴박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선조들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슬기를 다시금 새겨보며 다음호실로 향하였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민족의 향기
조선봉건왕조시대
이웃나라
평안도

제일 무더운 때인 삼복철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맘때면 동포여러분의 머리속에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물음에는 금빛이 도는 그릇에 담겨진 매끈매끈한 국수발우에 여러가지 고명을 얹고 시원한 육수물을 부은 평양랭면생각이 난다는 분들도, 발등에 한방울만 떨어져도 보약이 된다는 단고기국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듯이 《더위는 더위로 물리친다》고 삼복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몸이 약해지므로 찬 음식보다는 더운 음식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여름철의 으뜸가는 보신탕으로 널리 알려진 단고기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복날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의 민족적풍습으로 여기어왔습니다. 고구려무덤벽화에서 육고에 단고기를 매달아놓은것만 보아도 그때 벌써 단고기를 식생활에 리용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단고기국은 흡수가 빨라 몸보신에 좋고 온갖 질병을 예방하며 더위를 견딜수 있게 하여줍니다. 그것은 단고기에 단백질, 지방, 당질, 칼슘, 린, 비타민B군, PP, E, 콜린 등이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고기국에 대하여 품종고 소개를 하리라 결심한바에 우리는 해외동포들속에도 잘 알려

진 평양단고기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20여년동안이나 단고기국을 만들었다는 주방장 김영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먼저 단고기의 피뽕기를 잘 하여야 합니다. 각을 뜬 단고기는 흐르는 물에 8시간 담고어 살속에 스며있던 피가 말끔히 우려나온 다음 끓여야 비린내를 없앨수 있습니다.

2kg정도의 단고기를 가마에 넣고 고기가 푹 잠길 정도로 3~4배의 찬물을 붓습니다. 단고기는 처음에는 센불에서 1~2시간정도 끓이다가 약한 불에서 3~4시간정도 서서히 끓이면서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기름은 양념장에 넣을수 있게 따로 걷어낸



김영숙

단고기국에 넣을 양념장은 고기를 끓일 때 걷어낸 기름으로 잘게 탕친 만문한 가죽고기를 연하게 달군 냄비에서 볶다가 썬 방아풀(10g), 썬 파(50g), 다진 마늘(50g), 고추가루(50g), 소금(5g), 참깨(50g), 맛내기(5g), 후추가루(1g) 등과 함께 약간의 물을 두고 3분정도 끓이면 맛있게 완성됩니다. 뿐만아니라 푸초, 사자고추, 방아풀, 쌍채(고수), 진채, 파, 마늘은 깨끗이 씻어 잘게 탕치고 들깨는 타지 않게 닭아 성글게 찢어놓습니다. 이 모든 양념감들을 접시에 색을 맞추어 보기 좋게 담아냅니다.

단고기국은 흰쌀에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깍두기를 곁들여 드시면 그 맛과 영양가가 더 좋아집니다. 지난 기간 우리 평양단고기집으로는 수많은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남조선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단고기음식들을 맛보고 <조선민족제일음식>, <민족전통음식>, <대결작>, <건강에 좋은 보약중의 보약>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고기국을 가슴이 후련하게 잡수시고 힘을 내어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모두가 떨쳐나섭시다.

그럼 이번 삼복철에는 가족성원들의 몸건강을 위하여 늘 마음쓰는 어머니나 안해, 딸이 손수 만들어 대접한 단고기국을 꼭 맛나게 들리라는것을 우리는 믿고싶습니다.

동포여러분이 다음번 조국에 오실 때에는 복날에 땀을 푹푹 흘리며 단고기국을 잡수셨던 감상도 우리와 함께 웃음속에 나누어봅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 해

삼복철에는 온돌방에서 땀을 흘리며 먹는 뜨끈뜨끈한 단고기국이 별맛이다.



후 방아풀(20g)을 가제주머니에 넣어 더 끓입니다. 뼈에서 살고기가 쉽게 떨어지도록 푹 삶아지면 가마에서 고기를 건져내어 뼈를 추리고 가죽고기와 살고기를 6~7cm의 길이로 가늘게 찢어놓습니다.

국물은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딱딱하게 덩칩니다. 단고기국은 지방에 따라 맛이 특색있었는데 함경도지방에서는 단고기국에 소금을, 평안도지방에서는 된장을 썼습니다.

미국의 타산은 오산이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조선인민이 거둔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그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시초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변이었다. 하지만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제의 탐욕적인 타산밑에 벌어진 조선전쟁을 두고 우려는 하면서도 조선이 미국을 타승할 것이라는 믿음은 못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불패의 거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를 타승할 힘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지 그렇게 오만해진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면서도 저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로 쉽게 조선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맥아더는 종군기자들에게 미군은 72시간내에 조선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적의 불의의 침공을 즉시에 격퇴한 조선인민군은 반공격으로 넘어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였으며 남조선피뢰군을 풍지박산내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미국은 저들이 나서면 전선형편이 달라질 것이라며 미군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몇개의 전투실상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흙으로 빛은 《거인》, 썩은 마대자루

1950년 6월 30일 미8군사령관 워커로부터 미24

보병사단을 조선전선에 급히 출동시킬데 대한 명령을 받은 사단장 편은 선견대로써 스미스특공대를 먼저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오산계선에 진출한 특공대장 스미스와 사병들은 상전들이 그러했듯이 저들이 전선에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인민군대는 방향을 바꾸어 퇴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 있었다.

하지만 예상밖으로 선두에서 진격하던 인민군 땅크병들은 오산계선에서 보병들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미군을 맞받아나가며 무자비하게 깔아뭉개었다. 그들의 맹렬한 진격앞에 넋을 잃은 미군은 저항할 엄두도 못내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다. 선두땅크구분대의 뒤를 따라 진격하던 보병구분대병사들은 육박전으로 적병들을 무리로 쓸어버리었다.

당시 총창으로 17명의 미군을 소멸한 부분대장 조현구는 전투후 치고 찌르면 꺼꾸러지는 미군이 야말로 흙으로 빛은 《거인》이 아니면 썩은 마대자루같았다고 자기 소감을 괴력하였다.

그는 그후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종이범

미군은 주문진앞바다에서도 참패를 당하였다. 당시 미해군의 중순양함 《볼티모》호와 경순양함, 구축함과 맞대는것은 조선인민군 제2어뢰정대였다. 대형군함 3척과 4척의 어뢰정과의 대결, 그것

도 밤도 아닌 밝은 때여서 승패는 미해군에게 있는듯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군사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이라 해도 전투에서 용감성과 대담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다면 《바다의 움직임은 섬》이라고 자처하는 함선도 불지르면 타번지고마는 종이범으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인민군해병들은 어뢰정을 몰고 전속력으로 적함선들로 육박하였다.

바빠맞은 적들은 포사격을 하였지만 그들의 진전을 막을수 없었다. 드디어 22호어뢰정이 탄우속을 뚫고 적중순양함에 육박하여 어뢰를 쏘았다. 그 뒤를 따라 21호어뢰정이 또 한발의 어뢰를 명중시켰다. 불길에 휩싸인 적함선에서는 수많은 적들이 뾰트를 내리고 구명환을 찾느라 허우적거리다가 어뢰정에서 내쏘는 기관총화력에 무리로 쓰러졌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22호어뢰정이 쏜살같이 달려가 세번째 어뢰를 적중순양함에 먹이였다. 순간 적순양함은 불길에 휩싸인채 바다속으로 처박히기 시작하였다. 적경순양함도 접근하여 발사한 어뢰정의 어뢰에 명중되어 불길에 싸인채 끔무니를 빼고말았다. 이로써 인민군해병들은 어뢰정으로 중순양함 1척을 바다속에 처넣고 경순양함 1척을 격파하였다.

이것은 세계해전력사에 류레드문 기적이였다.

단숨에

조국해방전쟁의 마감을 가까이하던 시기 조선인민군의 한 부대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351고지탈환전투를 벌리었다. 이 고지를 장

적들을 물리치며 진격하는 인민군용사들

악하고있던 적들은 최신공병기술을 다 적용하여 351고지와 그 일대를 최대로 강화하였다. 적들은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351고지는 내어줄수 없다.》고 하면서 그 계선은 《불락의 요새》이며 《불퇴의 선》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강력한 포병준비사격으로 적의 방어축성물들과 포진지들에 명중포화를 들썩은 인민군포병들과 때를 같이하여 보병들의 맹렬한 공격은 순식간에 미국의 호언장담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지닌 인민군병사들은 돌격하다가 적의 철조망에 맞닥들면 철조망차단물위에 엎디어 자기 몸으로 전우들을 통과시켰으며 불을 뿜는 화구가 앞길을 막아나서면 자기 가슴으로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이렇게 인민군병사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공격개시후 불과 15분만에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이제는 6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미국은 오만한 스미스특공대의 괴멸과 수장된 《볼티모》호의 종말을 비롯한 수많은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있다.

력사의 교훈이 말해주는것처럼 미국은 그 어떤 타산이든 조선에서는 어리석은 오산으로 되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통일의 기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조국통일을 숙원하는 민족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김일성
1994. 7. 7.》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남기신 생애의 마지막친필은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자한자에는 조국과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다.

그이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불행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많은 방침과 로선,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가운데는 조국통일3대원칙도 있다. 주체61(1972)년 5월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려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평양에서 처음으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남측 대표를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북남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들을 한조항, 한조항 설명하시였다.

구절구절마다에 애국애족의 정신이 차넘치는 공명정대한 원칙앞에 남측 대표는 그이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 61(1972)년 7월 4일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 4북남공

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오자마자 거례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외세에 의존한다면 언제 가도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곡절많은 우리 민족사가 가리켜주는 교훈이다. 6. 15통일시대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거례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70년이나 되는 나라의 분렬로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싸워야 할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차이점을 극복하고 단합과 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6. 15통일시대

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걸어온 나날들이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세뿐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통일열망이 고조되고 북과 남사이에 긴장완화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며 전쟁책동을 일삼아왔다. 조선민족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대단결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온 민족의 단결된 힘만이 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조국통일을 앞당겨올수 있다. 강렬한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 유구한 세월을 이어오며 공고화된 민족성은 우리 민족이 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우리 거례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운다면 얼마든지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어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흔들릴수 없는 통일의 기초로서 우리 거례가 조국통일운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본사기자

《인권옹호》를 떠드는 미국의 흥심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는 그리고 어느 국제기구도 부여하지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고있다. 그리고 해마다 판에 박힌 《인권보고서》를 그 무슨 장부처럼 뒤적거리며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을 일일이 헐뜯고 이래라저래라 혼시질하고있다.

가관은 미집권계층이 저들만큼 《인권보장》을 위해 애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자화자찬하고있는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인권모범국》, 《인권투사》로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소가 웃다가 꾸레미터질 노릇이다.

그것은 미국에서만큼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인권불모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기때문이다.

정치적무권리와 생명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 사회적불평등과 인종차별은 한마디로 쥐여짚 미국의 인권실태이다.

인권보장의 주요징표인 선거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독점재벌들이 권력분배를 위해 돈을 뿌리며 벌리는 투기적인 정치유희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한가지 리유로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오죽했으면 18살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관의 총에 맞아죽었는데 현지사법당국이 그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분노한 미국의 170여개 도시의 주민들이 지난해말 당국의 반인종적, 반인권적행위에 맞서 격렬한 시위까지 벌려

왔겠는가. 이것은 단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보다 엄중한것은 《인권모범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경찰당국이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아대고 지어 자동총은 물론 장갑차를 비롯한 중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인종차별만행에 격분하여 떨쳐나선 주민들의 대중적시위를 무참하게 진압하고있는 것이다.

하다면 인권허물을 수다히 안고있는 미국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게 《인권재판관》처럼 놀아대는 흥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인권옹호》를 남달리 떠들어대지 않고서는 생존을 유지할수도, 번영을 이룩할수도 없기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도 사회적모순과 계급적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조성되어있는 나라이다.

피줄, 문화, 지역의 공통성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전민이 공감할만 한 리념은 더우기 없다. 있다면 날로 심화되는 인종간, 지역간 모순과 갈등, 인간중오사상과 황금만능주의뿐이다.

이로부터 미지배층이 찾은 출로의 하나가 《인권문제》이다.

저들보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상을 주어 지배층과 반인민적사회제도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과 반항심을 녹찾혀보자는 목적에서부터 매해 《년례인권보고서》 발표놀음을 벌려놓고 더러운 침방울을 튀기며 남을 헐뜯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론》은 본질에

있어서 제도붕괴론, 침략론이고 세계제패론이다.

미국의 《인권옹호》타령이 먹어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미국에 환상을 가지고 그가 던져주는 푼돈을 받아먹으며 사는 주구들, 친미세력이 활개치고 그들에 의해 정치적무질서와 사회적혼란이 조성되곤 한다. 여러 나라에서 《색갈혁명》이 일어나고 그 나라들에서 심각한 혼란이 조성되고있는것은 미국의 악랄한 《인권공세》가 빚어낸 엄중한 후과이다.

자기 조국에서 죄를 짓고 부모처자마저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에게 몇푼의 돈을 쥐여주고 내세워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세계에 류포시키는 미국의 유치한 책동도 다름아닌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고 침략하기 위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인권》타령, 그것은 곧 미국이 자기의 흥심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주곡일뿐이다.

그러나 실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인권이란 어떤것인가를 절감하고있고 미국의 침략적본성을 잘 알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인권》나발은 통할수도 없고 용납될수도 없다.

미국이 너절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몽갠것처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과 그 인민을 대한다면 쓰디쓴 맛밖에 볼것이 없다.

본사기자 김솔미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일본에 《거짓말도 방법이 다》라는 속담 아닌 속담이 있다. 아마도 이 속담은 원래 생겨날 때부터 티끌만 한 량심도 없는 파렴치성과 도덕적저열성이 체질화되어있는 일본의 고약한 속성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일본속담을 좌우명으로 삼고 아직까지 남의 땅을 넘겨다보며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태도이다.

최근시기에도 일본외상 기시다의 조선의 땅 독도가 《일본 고유령토》라느니, 저들의 《독도령유권》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는 간특하기 짝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인터넷에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선전하는 동영상까지 빠졌이 울리는가 하면 10년전부터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라고 제정해놓았으며 해마다 이날이면 《년례행사》를 벌여 놓고 저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이미전에 벌써 내외의 한결같은 눈총과 지탄을 받아왔지만 일본은 아직도 몽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는 조선의 땅이었으며 그 령유권이 단 한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조선의 고유한 섬이다. 조선이 일본보다 1000년이나 훨씬 앞서 독도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제법상 무인도인 경우 《선점》의 원칙에 준해본다고 해도 독도가 맨 처음부터 조선의 령토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많은 역사자료들,

문헌들도 역사적으로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으려다가 조선사람들의 징벌을 받았으며 그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조선땅으로 인정하고 독도에 침입하는 일본인들을 엄격히 처벌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옛 지도들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짜로 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버리지 않는 일본은 종전에 내들었지만 이미 날조품으로 락인된지 오랜 《근거》를 이제는 표리부동하게도 《강위력한 증거》라고 하며 요설을 피우고 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요설을 까밝힌다면 그 《강위력한 증거》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직전인 1905년 2월에 독도를 시마네현소속으로 귀속시킨다고 한 《시마네현고시》 40호뿐이다. 그런데 이 문서라는 것도 일본정부가 각료들과 시마네현관계자들 몇명이 몰래 날조하여 돌린 것으로서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령토편입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 허위 문서이다.

조선은 일본이 불법무효한 협정문서를 조작하기 5년전에 벌써 독도령유권수속을 하고 내외에 선언하였다. 그것이 바로 조선봉건왕조가 당시의 근대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1900년 10월 25일에 공포한 칙령 제41호이다. 조선은 이미 512년에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조치도 취했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독도가 다름 아닌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질수록 거짓을 진실로 오도해보려는 협잡배들의 책동은 그야말로 발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년간 일본은 독도가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정책화하고 독도강탈야망을 일본보수정권의 기본 정치과제로까지 삼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에 독도문제를 전문으로 맡아보는 부서를 새로 내왔으며 《독도령유권》주장을 선전하는 정부홈페이지라는 것도 개설하였다.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 국가문서들과 다른 나라들에 배포되는 문서들에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위한 교과서편집의 지침으로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라고 명기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지고 일부 중학교교과서들에는 그것이 빠졌이 표기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단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시마네현 오기노시마정해변가 절벽우에 《다케시마비》까지 세운 일본은 올해에 《독도령유권》주장의 대외선전효과를 위해 거액의 돈을 들이밀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골백번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독도는 령사가 증명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조선민족의 불가분리의 신성한 령토이다.

본사기자

고 화

《주 막》

고화 《주막》은 신윤복(1758년-?)이 그린 그림이다.

그림은 옛날에 어느 시골의 길거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보통 주막집의 안뜰을 담장너머로 한눈에 들여다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막은 먼길을 오가는 길손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어 술이나 막걸리로 목을 추기거나 혹은 상밥으로 요기를 하고 가는 곳이다.

곱게 단장하고 앉은 주막집너인이 방금 들어온 손님을 반겨맞으며 잔에 넘치게 술을 따라주

는 참이다. 그런데 그뒤로 만 손님들이 또 따라들어서고있으며 편이은 손님을 치르느라고 심부름군사나이는 부뚜막옆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신분과 직업, 나이와 성별이 각이한 인물들이 등장하였는데 그림은 그들 매 사람의 차림새와 몸짓, 그들 호상간의 관계와 교감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당시 사회상의 한 부분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있다.

* *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본사기자 최원철

조국해방전쟁승리 [주체39(1950). 6. - 주체42(1953). 7.] 60돐을 맞으며 새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 전통교양의 거점이며 반미교양의 중심기지인 이곳으로 조국인민들은 물론 많은 해외동포들도 끝없이 찾아오고있다.